定慧社

불기 2549년 겨울| 제32호

교수논단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정혜탐방 안성 석남사 회주 원공정무圓空正無 큰스님

특별기고 불교의 지관수행 止觀修行

학인기고 『圓頓成佛論』과 『看話決疑文』을 통해서 본 禪敎一 致
「大乘에 歸依한 菩薩의 修道位次에 관하여」

송광사 전통강원

조계의 물소리

간경에 임하는 자세

송광사 강원에서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5시간 가까이 간경看經을 한다. 또한 쉬는 시간 틈틈이 간경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송광사에서는 간경이 생활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강원은 선원과는 달리 처음 발심하여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은 곳이다. 강원은 부처님의 경전을 익히는 곳으로서 간경 수행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기초선원에서 승가의 첫 단추를 채우는 일부의 스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이 강원에서 간경을 익히는 것으로 발심의 계기를 삼는 이유는 부처님의 경전을 익히고 그 뜻을 드러내는 일이 곧 깨달음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담아 둠으로써 수행의 길을 올바르게 가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팔정도에서 정견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 또한 바른 견해의 확립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간경에서 간이란 선림 용어로서 원래 소리 내지 않은 채 바라봄을 지칭한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소리를 내어 경전을 송하는 독경을 포함하며 고요히 마음속으로 읽는 것 외에 경전 공부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것도 포함된다.

간경 수행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깨달음에 대한 실천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고 업장을 녹이며, 간경을 통하여 경전의 구절을 외워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법음이 흘러나오게 하며 마음으로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함경-비바시불경』에 의할 것 같으면 "만약 어떤 사람이 경을 즐거이 수지하고 행주좌와에 사유, 독송 한다면 모든 미혹이 사라지고 길이 윤회를 끊게 될 것이며 해탈·안락케 되리라"라고 한다.

하지만 간경을 할 때 단지 문자를 좇아 외우고 구절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귀결시키지 않은 채 입으로만 외운다면 그것은 참된 공부라 할 수 없다. 물론 초심初心에 있어서는 무작정 반복하여 간경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일상 속에서 틈틈이 간경하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간경의 힘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 주리반특이라는 제자는 '더러움을 벗겨내자' 라는 어구를 반복하여 외우는 것만으로도 아라한이 되지 않았는가. 간경을 하기 전에는 서원을 세우고 자비심을 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신심이 촉발되고 산란하지 않으며 안정된 마음으로 간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간경을 함으로써 나의 무명과 업장이 소멸되어 지이다' 라고 한다거나, '모든 중생의 마음에 지혜가 싹터 지이다' 라고 한다거나 또는 '나의 간경 소리가 지옥에까지 이르러 모든 고통 받는 중생이 소멸되어 지이다' 라고 마음 속 깊이 발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비의 서원은 간경으로 인한 진리의 체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이어지도록 해 줄 것이다.

『치문-팔일성해탈문』에서는 간경자를 이르러 부처님 이치를 밝히는 자 라고 말한다. 모두가 간경을 생활화 하여 부처님의 이치를 밝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간경자가 되었으면 한다.

定慧社

불기 2549년 겨울호 | 통권 제32호

2 **사진 속 이야기**

4 **방장스님 법어**

을유년 동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6 **교수논단**

수행의 이론과 실천 | 원경

11 **기획연재**

송광사 산내암지와 국사탑 – 묘적암지

14 **지대방 이야기**

사미반 | 도휴

졸음 | 진각

강원 생활의 의미 | 자각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 두윤

우리반 | 태원

18 **정혜탐방**

안성 석남사 회주 원공정무圓空正無 큰스님

24 **목우만평**

구자무불성拘字無佛性 | 서림

26 **목우단상**

부처님과 나와의 소중한 인연 | 능인

보조국사 지눌스님께 | 신해

스님 군대가다 | 지륜

어느 죽음 앞에서 | 혜산

31 **특별기고**

불교의 지관수행止觀修行 | 무애

36 **바람소리 한자락**

갈대밭에 가면 | 본행

바위와 노을 | 혜강

상생죽필문 | 시명

40 **경전 한 구절**

자비안慈悲眼

41 **詩가 있는 풍경**

낙엽 | 법공

야음 | 해동

43 **학인기고**

『圓頓成佛論』과 『看話決疑文』을 통해서 본 禪敎一致 | 도해

「大乘에 歸依한 菩薩의 修道位次에 관하여」 | OO스님

52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55 **소년소녀가장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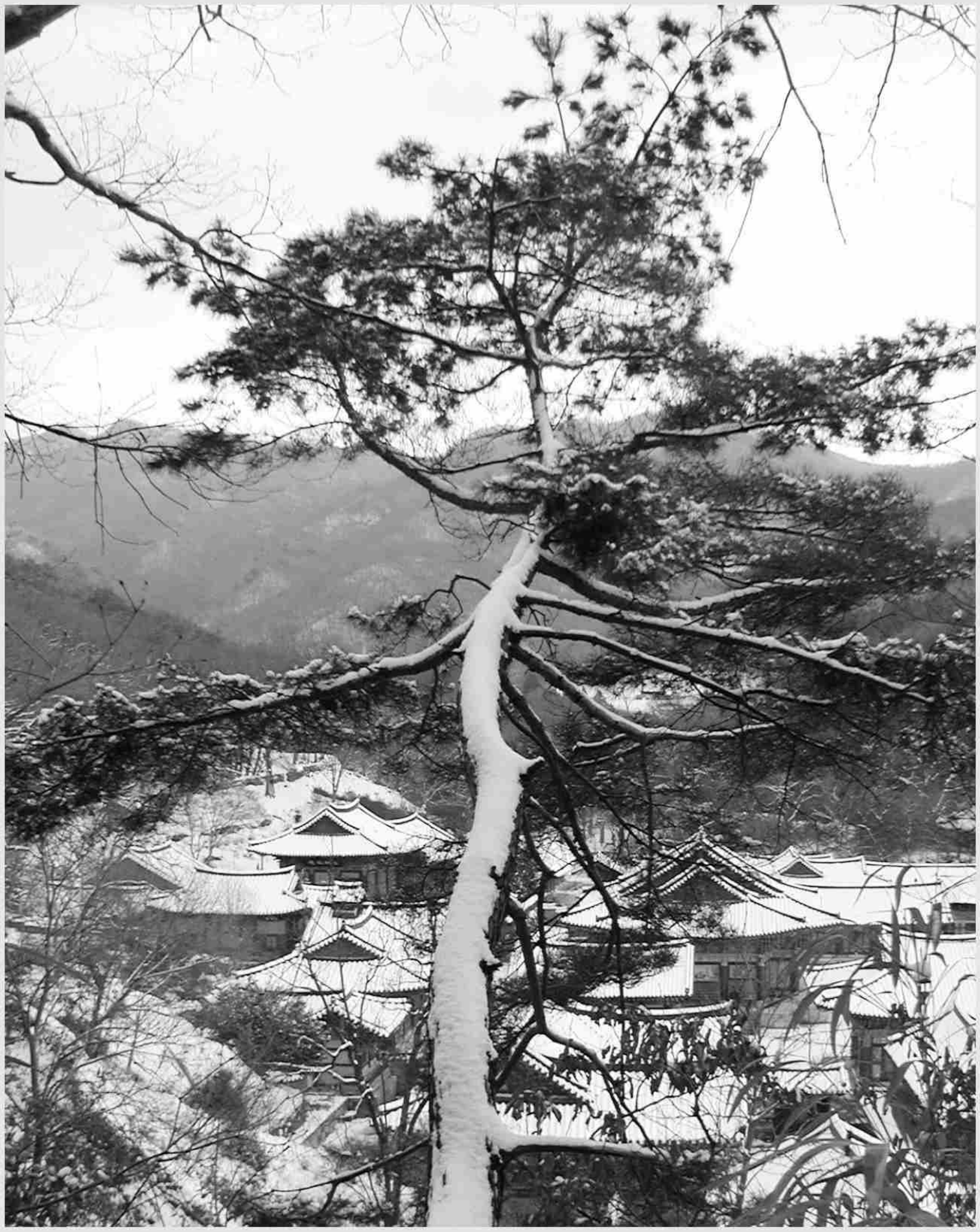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간밤에 내린 눈으로 조계산은
새하얀 옷으로 장식하고
엄격한 위계의 강원생활 속에서
위, 아랫반이 격의없이 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체육울력...
치 문반 스님들!
원하는 만큼 맘껏 달리세요!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정달(입승)
편집장 | 혜명
편집 | 혜도 · 상국 · 법공
사진 | 혜도

발행일 | 불기 2550년(서기 2006) 2월 6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月作金徽風作弦 월작금휘풍작현
淸音不在指端傳 청음부재지단전
有時彈罷無生曲 유시탄파무생곡
露滴松梢鶴未眠 로적송초학미면

선시禪詩 | 지옹스님·선시여설禪詩餘說 | 편집실

모두들 말한다.
이 길은 태어남으로 미소 짓고,
죽음으로 눈물짓는 길이라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희로애락의 길을 만들어 간다.
또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광명光明의 길, 지혜의 길, 끝없는 바라밀의 길을.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순백의 길이리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고,
참 마음이라는 화두를 짊어지고 간절하고 간절한 걸음을 옮겨간다.
이 때 대 자연은 나의 도반이 되고, 선지식이 된다.
그리하여 옛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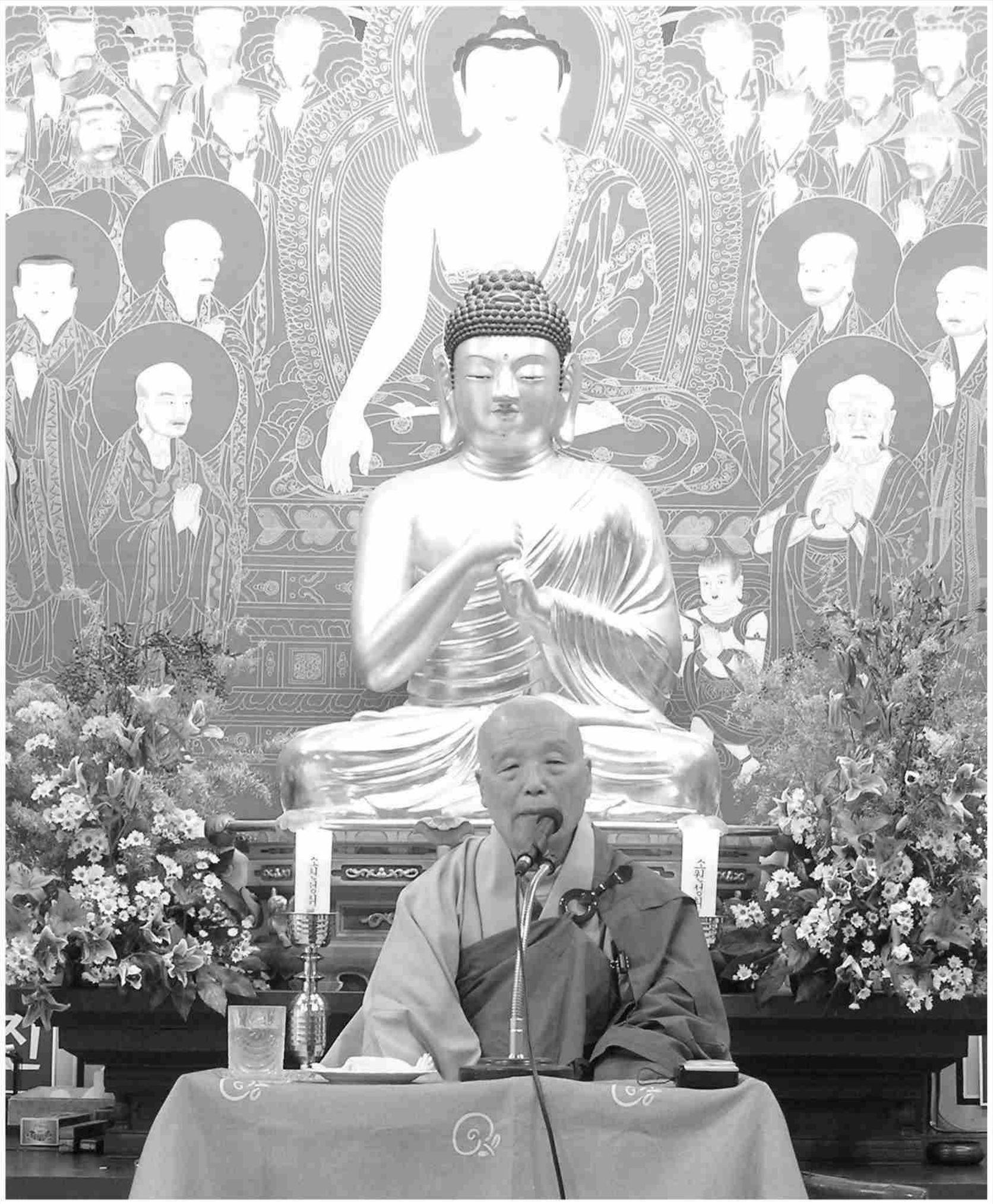
"저 달은 금빛 거문고 되고,
불어가는 한 줄기 바람 현弦 되었네.
이제야 알았네.
마음 울리는 은은한 맑은 소리
손끝으로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을.
때때로 튕겨오네.
깨달음의 노랫가락이.
누가 들었을까.
하늘이 감동해 비 내린 이슬이
솔잎 끝에 방울져 떨어지는데,
학은 날개 짓하느라 잠 못 이루네.
푸드득 푸드득…"

이 길을 걷는 나그네여!
너와 나 우리 모두 지금은
목젖을 쥐어짜는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노래하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들으리라.
모든 것에 순응하는 노래.
진향眞香을 머금은 노래를…

방장스님 법어

을유년乙酉年 동안거 결제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금풍金風이 송후送候하고 상광霜光이 영시迎時하니
고불면목古佛面目이 수시현현隨時顯現이요
조사가풍祖師家風이 처처항신處處恒新이로다.

개전階前의 수주황국數株黃菊은 누천하지만추漏天下之晩秋요
영상嶺上의 계수한영桂樹寒影에 만월륜지기백滿月輪之氣魄이로다.

운문선사인승문雲門禪師因僧問 "수조엽락시여하樹凋葉落時如何닛고"
사운師云 "체로금풍體露金風이니라."

대중大衆이여!
행보무방전후도行步無妨前後掉 구타불여반구제기求他不如反求諸己로다.

면전약유일엽面前若有一葉이면 도처무풍기랑到處無風起浪이요
홀문한안일성忽聞寒雁一聲이라도 함몰흑산귀굴咸沒黑山鬼窟이로다.

회마會麼
내년갱유신조생來年更有新條生하야 뇌란춘풍종불휴惱亂春風終不休로다.

가을바람은 시절을 보내고 찬 서리 빛이 새 계절을 맞이하니,
옛 부처의 면목이 때를 따라 나타나고
조사의 가풍이 간 곳마다 언제나 새롭도다.

뜰 앞의 몇 그루 황국은 천하의 만추를 누설하고,
고개 위의 계수나무 차가운 그림자에 둥근달의 기백이 가득하도다.

운문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묻기를 "나무가 마르고 잎이 다 떨어진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본체가 가을바람에 드러난다" 하였다.

대중들이여!
걸어갈 때에 앞뒤로 팔을 흔드는 것은 무방하지만,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만 못한 것이니라.

만약 눈앞에 잎새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간 곳마다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킬 것이요.
홀연히 찬 기러기 울음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모두가 캄캄한 귀신 굴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알겠는가.
내년에도 새 가지가 다시 돋아나 봄바람에 쉬지 않고 흔들리리라. 定慧社

수행의 이론과 실천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講師
ekayanawk@hanmail.net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제 1화두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제 2화두 :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제 3화두 : 성불의 현대적 의미
제 4화두 :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제 5화두 : 수행의 이론과 실천
에필로그 : 행복과 정토사회 구현

이론과 실천은 동전銅錢의 양면과 같아서 이 둘은 땔래야 땔 수 없는 밀밀密密한 사이이다. 그러나 이론 속에는 실천 그 자체가 없다. 한편 실천을 설명하는 언어적 논리는 역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실천 그 자체는 언어적 설명을 통해 완벽하게 이론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론과 실천을 동일同一한 차원에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론을 통해 실천을 나타내고 실천은 이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생각처럼 그럴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가 있다. 여기에 어머니와 아주 어린 자식이 함께 달을 보면서 서 있다. 자식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늘에 보름달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기에 어린 자식에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얘야 아가야. 저 하늘에 달을 보아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하고 말하지만 자식은 자꾸 어머니의 손가락만을 쳐다보는 것이다. 자식의 눈에는 어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 인지認知되고 달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자식이 달과 손가락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는 한 달과 손가락은 전혀 다른 타자他者가 되고 만다. 수행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도 결국 경우에 따라서 이와 비슷한 관계가 아닐까.

일부 비평가들은 비평批評의 딜레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평은 사람들에게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평이 사람들에게 선입견先入見을 심어주기 때문에 참되게 예술작품을 감상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 같은 예술분야에서는 비평가들이 그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象徵性, 추상성抽象性들을 언어적 차원으로 해석하여 감상자와 예술작품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비평가가 감상자와 예술작품과의 관계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감상자의 심미안審美眼을 눈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일보다 비평문을 먼저 대하게 되면 선입견이 생겨 본래의 예술작품이 가진 세계로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말들도 감상자가 그 예술세계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아름다

움이나 상징성은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그런 물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행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은 마치 길 안내서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북 속에는 어느 지역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장소〔境地〕에 대한 문제와 그에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근원적으로 생명生命을 가지고 있는 한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더 이상의 존재 이유를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존재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각각 너무나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의 존재들 대부분은 상대적인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출가하여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이 도달하려는 열반涅槃의 경지는 절대 행복의 차원이다. 모든 수행자들은 절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그 행복을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고래古來로 선지식들이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 안에서도 사상의 차이에 따라 그 절대 행복에 이르는 수행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바로 이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수행의 이론과 그에 따른 사상이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천체계가 정립되었는지 살펴보자.

석존釋尊께서 출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이 쫓는 상대적인 차원의 행복 추구는 생사生死에 대한 근원적인 번민煩悶만 더 가중될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석존에게 있어서 출가는 행복 추구의 방식과 행복의 경지를 보는 관점의 대변화라고 할 수 있다. 출가는 상대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결코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는 반성과 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흔히 세속의 행복은 욕망의 성취 여부로 결정되는데, 오히려 석존에게 있어 자식인 라후라Rāhura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행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障碍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존의 출가는 상대적인 차원의 행복을 청산하고 절대 행복으로 회귀하였다는 대선언大宣言과 다름이 없다.

>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남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참아내기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며 곤경에 빠져서 계율을 지키기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 어려우니라. 『별역잡아함경』

석존은 출가 후 당시 인도의 정통 브라만의 수행법 가운데 최고의 경지에 오른 두 스승을 찾아간다. 알라라 칼라마Ālāra Kālāma의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과 웃다카 라마풋다Uddakā Ramaputt의 비유상비무상처정非有想非無想處定을 닦아 그 선정 삼매를 터득하였다. 그렇지만 석존은 그 선정법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삼매三昧 속에서는 잠시나마 모든 번뇌를 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출정出定하면 도로 근원적인 생사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었다.

결국 석존은 삼매에 대한 선정락禪定樂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왕사성의 고행림苦行林을 찾아가 당시 바라문의 사상에 반대하며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고 있었던 외도外道들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고행苦行을 6년간 연마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고행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던 석존은 고행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석존은 선정락과 고행苦行의 양 극단의 수행을 모두 체험한 후 그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 후 중도적 수행을 통해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성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교의 수행 체계와 이론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타난 석존 자신의 중도적 실천을 통해 체험적으로 이룩한 것이었다. 또한 석존의 정각正覺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당시 인도 사상의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의 양 극단을 극복하고 중도中道 사상을 세상에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근본불교根本佛敎의 수행법은

싸마타Samatha수행과 위빠사나Vipaśyanā수행법으로 나누고 있다. 싸마타수행법은 흔히 지止수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위빠사나 수행법은 관觀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의 차제次第로 볼 때는 지수행을 먼저 닦아 거친 번뇌를 잠재운 다음 그 삼매력三昧力을 근간으로 하여 관수행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아주 근기根機가 수승한 사람 가운데 번뇌에 물들지 않은 자라면 바로 관수행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관수행의 요체要諦는 순간순간 인식되는 다르마〔法〕에 대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3상三相을 철저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과정들은 이론적 측면에서 아비달마 논서에 자세히 상술詳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청정도론』은 현재 아비달마 수행의 가장 중요한 이론서라고 하겠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발우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념처경』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화선看話禪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일까.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간화선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간화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서 천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간화선의 수행법은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근현대 교육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9세기 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신학문新學問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면서 전통적이고 훈고학적인 서당식 한문 중심 교육은 위기를 맞게 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학교교육이 제도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서당식 교육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근대 교육사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단순한 세대교체 속에 내포된 엄청난 질적 차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유思惟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당식 한문교육은 한문의 언어적 구조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교육의 핵심은 대단히 직관적인 사고경향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래 중국인의 사고방식이 직관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삼국시대 이래 중국을 통해 학문과 기타 여러 문물文物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발전시켜 왔다. 그러니까 중국적 직관의 사유방식은 대략 15세기에 걸쳐 한민족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개화開化와 해방解放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교육문화의 구심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 논리구조로 대치되게 된다. 겨우 50여 년에 걸친 시기 안에 이루어진 인식 논리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그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 틀을 직관적 사유체계에서 분석적,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듯 교육체계의 변화는 한문과 영어〔국어〕의 차이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의 사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언어정책에 있어서도 한글전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공식적으로는 한글과 한문을 병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문은 이제 특수한 계층들이 연구하는 목적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연히 과거 우리 전통문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한문의 직관적 논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면 인식의 구조와 수행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위빠사나의 수행법은 분석적 사유체계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교육적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서양식 학교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빠사나의 수행법이 논리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한편 한문의 구조적 특징과 중국인의 사유방식

속에서 나온 간화선의 수행법이 현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출가하여 사찰의 전통 강원講院에서 이루어지는 한문 중심의 교육방법에 대해 몇몇 학인學人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이유도 바로 두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차이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대략 1세기(AD67년 설) 무렵이다. 이후 차츰 인도의 역경가譯經家들이 중국에 건너와 대소승의 여러 경론經論들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불교가 중국인들의 사유思惟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약 500여 년에 걸쳐 많은 경전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시기가 인도 불교의 중국화 준비과정이라고 하겠다. 바로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인도적 사유구조와 중국적 사유방식 간에 충돌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격의불교格儀佛教와 교상판석教相判釋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도 불교를 중국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분석적 사유방식의 인도불교가 직관적 사유방식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수용되어 중국화되는데 5백여 년이 걸린 셈이다.

교판教判사상에 입각한 종파宗派불교의 성립은 이론적으로 인도불교가 중국화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왜냐하면 중국불교의 특징을 종파불교라고 규정하는데 바로 종파는 교판에 따라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판사상은 이론적 측면의 불교를 지칭하는 것인데, 중국 천태종의 지관법은 수행의 실천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관법이 인도의 분석적 수행법인 싸마타 위빠사나 수행법에서 중국의 직관적 수행법인 선수행법으로 발생되어 정착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천태天台 지자대사는 기존의 모든 대소승불교의 수행법을 대승의 반야사상에 근거하여 천태지관법으로 정리하였다. 즉 천태지관법의 기초는 용수보살의 『중론』과 『대지도론』에 따른 공가중空假中의 일심삼관一心三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천태 이전에 중국에서의 수행법은 주로 경전에 나타난 삼매를 닦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태에 의해 비로소 대소승의 모든 수행법들이 천태지관법으로 종합되면서 중국적인 방식의 직관적 수행의 틀도 정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천태학의 소의 경전은 『법화경』이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대승경전 가운데 '왕 중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법화경』의 중심사상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이다. 이 실상 중도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법화경』 전반부에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삼승을 회통하여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도리를 밝혀 지금까지의 모든 경전〔이론〕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구원실성久遠實成', 즉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사상을 천명함으로서 신앙〔실천〕의 대상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법화경』은 공사상의 기초 위에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통일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경전 가운데 왕좌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다.

달마의 선종禪宗이야말로 중국적인 사고방식에서만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가장 적절한 수행법이 아닐까. 즉 달마가 인도를 떠나 중국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두 불교간의 인식논리 차이에 연원하는 것은 아닐까. 선수행법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인의 직관적인 사고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다. 달마가 중국에 오기 이전 이미 중국인들은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인도불교를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거의 중국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위에 달마의 선종은 6조혜능에 이르기 까지 선종이라는 전혀 새로운 중국식 불교문화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중국 선종은 중국인의 직관적 사유구조에서 생겨난 불교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말라.
만약 진실을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
만약 능히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이다.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거니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는가. 『육조단경』

왕권시대에 종교는 지배자의 정

치이념에 따라 부침浮沈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선종은 당나라와 송나라에 걸쳐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으며 그 이후 차츰 그 세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선수행법의 본질도 선禪과 정토淨土의 결합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선종이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언어와 사상에 있어서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불교의 정수精髓인 선의 전통을 아직까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학문과 사상의 중심지가 서양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사고도 직관적 방식에서 분석적 경향으로 변하였다. 서양의 변증법적 논리는 과거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있는 직관적 논리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개념을 상대적으로 분석分析하여 상대적인 인식認識의 범위 안에서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라도 상대적인 인식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상대적인 인식이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30cm의 자[尺]를 가지고 우주 공간의 절대 거리를 재려는 식이 아닐까. 물론 우주의 무한한 거리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우리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중생의 상대적인 분별分別 인식으로서 도달할 수 없다. 현대교육을 받은 우리들의 인식이 직관적 수행법을 너무 상대적인 가치로만 재단하려는 것은 아닐까. 불교수행의 단계를 『화엄경』에서는 신信·해解·행行·증證으로 설정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바른 이해가 생겨난다. 『법화경』에서도 '신해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생각이 들 때 믿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여긴다. 과연 상대적인 분별력으로 절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입차문래入此門來하면 막존지해莫存知解하라"는 말이 있다.

즉 불교라는 진리의 문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알음알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알음알이가 얼마나 진리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가를 단적으로 경계하는 말이다. 빨간색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라. 그는 세상이 온통 빨간색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파란색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온통 파란색이라고 말할 것이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겠는가.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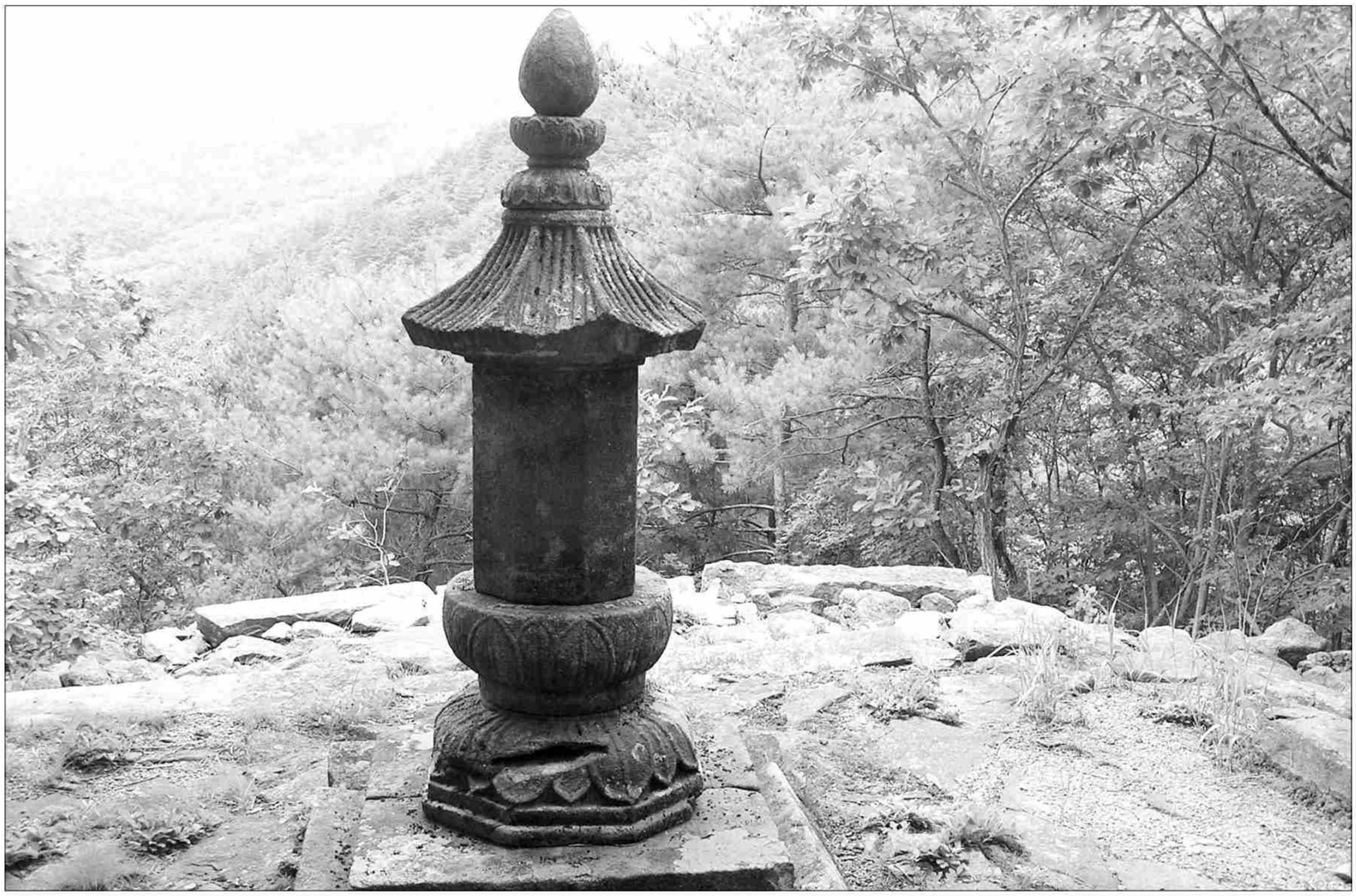
과연 요즈음 혹설자或說者들이 간화선에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바른 믿음을 통해 간화선의 전체적인 수행관을 확고하게 수립한 다음 바른 실천을 통해 화두를 참구參究 노력해 보았는가 묻고 싶다. 바른 이론 정립도 없이 어떻게 바른 실천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론 정립이 없이 형식적으로 수행을 흉내내는 것은 마치 초심수행자가 스승도 없이 깨달음의 공부를 지어가는 것과 같다. 털끝만큼의 착오만 있어도 종국에 가서는 천지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마음공부이다. 무엇이든 상대적인 분별심分別心으로 헤아려 인식하려는 현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도 방편상의 변화와 적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어떤 병자病者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毒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간화선이 한반도에서 천년 가까이 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의 인간과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약이 되기 위해서는 병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간화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화선의 이론과 실천법을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배경인 분석적 사고방식의 구조에서 과연 간화선이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우리들이 손가락과 달의 상징성을 일체화하는데 분석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직관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진정으로 고민할 시기가 된 것이다. 定慧社

〈다음호에 계속〉

송광사 산내암지山內庵址와 국사탑國師塔

4. 묘적암지妙寂庵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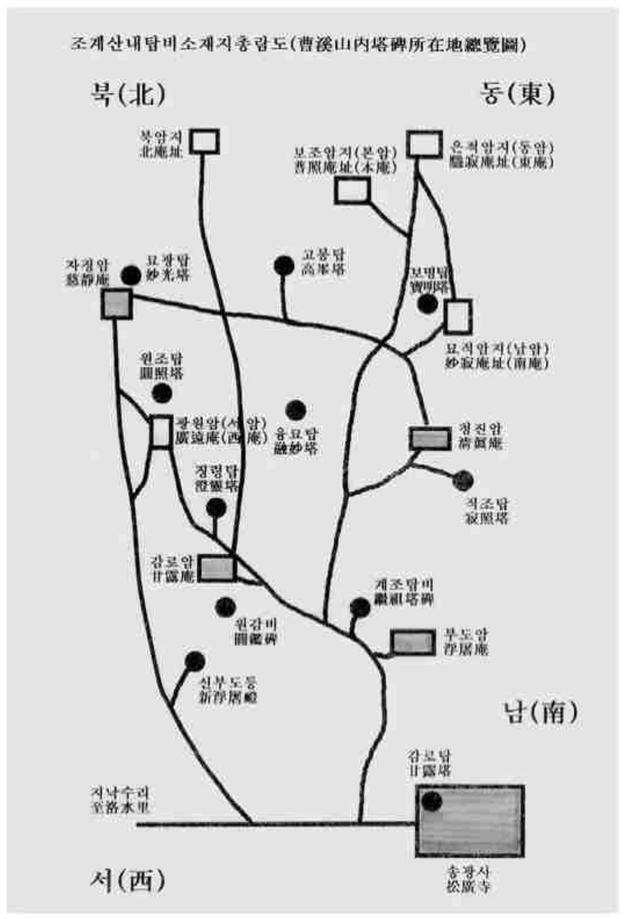
묘적암지 원감국사 보명탑

원감국사圓鑑國師의 보명탑寶明塔이 자리하고 있는 묘적암지妙寂庵址은 조선 광해군(1608~1623) 때에 중수되었다는 기록만 전해져 올 뿐 언제 창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 충렬왕 19년(1293), 당시 송광사松廣寺 수선사修禪社에 주석하고 계시던 원감국사의 입적 후 왕의 명령으로 스님을 기리는 보명탑이 이곳에 건립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미 그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다. 현재 폐사지로 남아있는 묘적암지에 위치하고 있는 보명탑은 원감국사 생전에 초창하신 송광사 산내 암자 중 하나인 감로암甘露庵과 더불어 스님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중한 사료다. 조계산 수선사의 북쪽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는 보명탑은 1993년부터 원감국사의 흔적을 더듬어 보려는 후손들(수녕' 위' 씨)의 참배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원감국사는 고종 13년(1226) 병술 11월 17일 전남 장흥군에서 탄생하셨다. 휘는 충지冲止이니 본래는 법환法桓이었고 속명은 원개元凱, 자호는 복암노인宓庵老人, 속성은 위씨魏氏이며, 전남 장흥군 정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소紹니 호부원 외랑이요, 어머니는 원방 대부인 송씨宋氏니 이부원 외랑 자옥의 딸이다.

동 21년(9세)에 비로소 취학하였는데, 총기가 뛰어나서 경서經書와 자사子史를 눈에 지나는 대로 외우셨으며, 또 속문을 잘하셨으므로 동 29년(17세)에는 사원시司院試를 마치시고, 동 31년에 춘위春闈에 나아가 장원



국사로 산내암자 지도

묘적암지의 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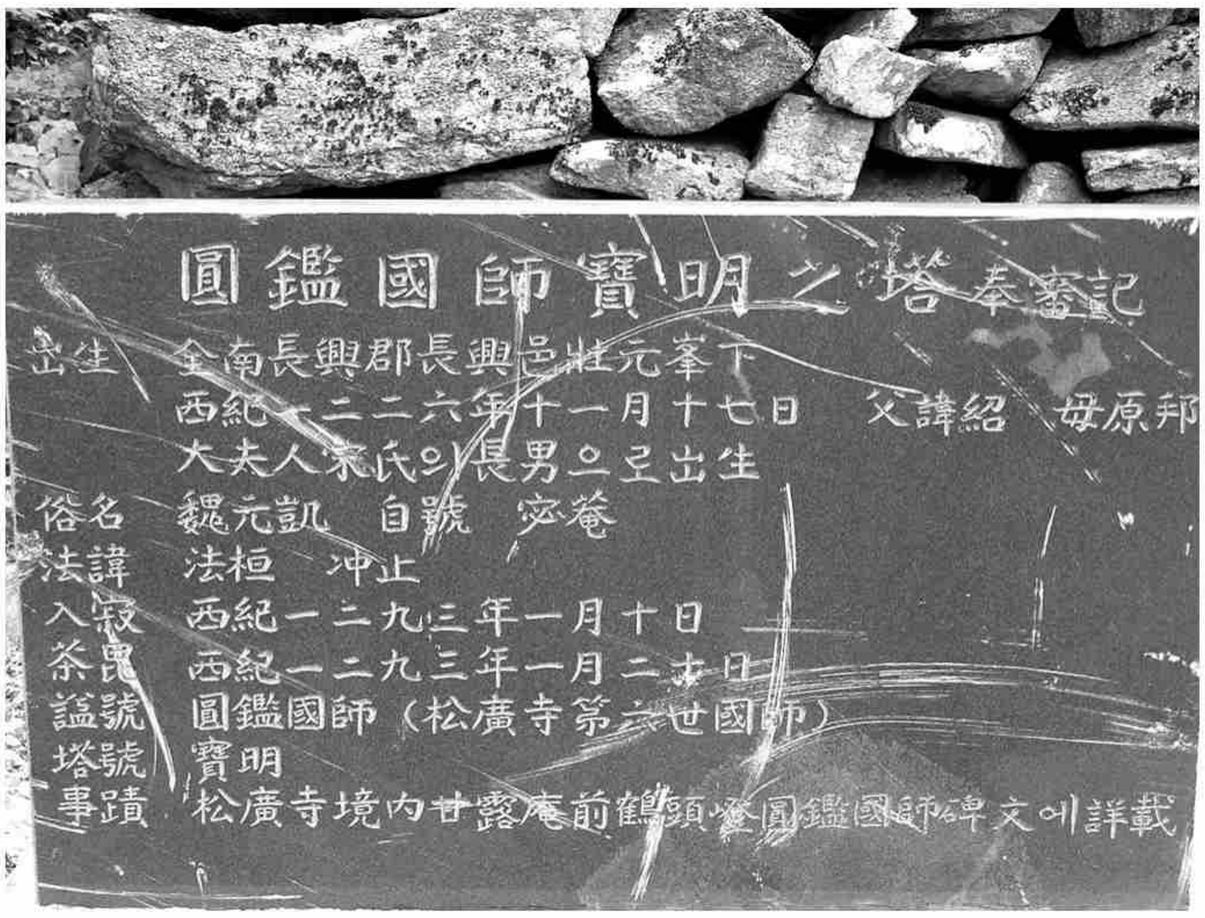
에 오르셨다. 일찍이 영가서기永嘉書記의 관직을 제수 받아 복무하던 중 일본에 봉사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잘 이행하여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방에 나타내셨다. 관위는 금직옥당禁直玉堂에 미쳤는데, 그 제작의 체가 원숙하고 통려通麗하여 기유耆儒와 숙배宿輩들도 모두 긍복함에 이르렀다. 스님은 소년시절부터 선교에 의지하여 깊이 불승佛乘을 간절히 생각하더니 동 41년(29세), 선원사禪院社의 법주이신 원오국사圓悟國師께 나아가 소지를 품고하여 득도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으셨다.

그 후 미구에 석장錫杖을 남쪽으로 굴리어 남순의 교를 닦았는데, 멈춘 곳마다 총림의 중진이 되셨다. 한 곳에 오래 머무름이 없이 인연 따라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면서 주지직에는 아예 뜻이 없었으니 이는 원오국사의 고풍을 생각한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원종 7년(41세)여름에는 원오국사의 교유와 조지를 받들어 마지 못하여 신어산神魚山 감로사甘露寺(경남 김해군)의 주지로 부임하셨다. 여기서 한 선덕의 요청으로 모처럼 붓을 들어 한 수 읊으니,

春日花開桂苑中　봄날 계원 중에 꽃이 피니
暗香浮動小林風　그윽한 향기 소림풍에 둥실 떠가네.
今朝果熟霑甘露　오늘 아침 과일 익어 감로 맛이라.
無限人天一味同　무한한 인천에 한 맛이 같고녀.

이 시가 세상에 알려지자 원근의 많은 사대부들이 스님을 한번 친견하기를 원하여 줄을 이어 찾아오는 지라 감로사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났다. 동 14년에 고려의 장수 김방경金方慶과 원나라 장수 흔도欣都가 탐라를 토평하였는데, 원조에서 탐라에 달로화적達魯花赤과 관구병량사좌管句兵糧使佐를 두고 병량을 준비하는 가운데, 옛적에 방군으로부터 수선사에 획하劃下하셨던 근읍의 토전을 다시 관직에 기입하고 전세를 회수하니, 스님은 원제(세조)에게 청전표를 올려 몰수해간 토지를 환수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스님의 도덕과 문장을 높이 평가한 충열왕은 이를 승낙하고 스님에게 징소徵召를 내렸다. 동 10년(59세) 3월 8일에는 정혜사定慧社의 주원을 사퇴하시고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에 이르러 가만히 앉아서 선정을



보명탑 기념비(수녕위씨 후손)

원감국사비(감로암 입구)

닦으셨다. 정혜사의 입원 시부터 동 11년에 미치는 14년 동안은, 동사의 주지로서의 제회를 접으시고 참선에 힘쓰셨다. 동 12년 2월에 원오국사가 순세하시매 대중이 사로써 수선사주修禪寺主를 추거하고 상문狀聞하니, 주상이 원외시랑員外侍郎 김호담金浩淡으로 하여금 사를 청하여 입원入院하게 하였으므로 4월 16일에 입원 개당開堂하여 동사의 제 6세가 되셨다.

충렬왕忠烈王 17년 초여름에는 난을 피하여 고흥군高興郡 불대사佛臺寺로 이주하셨으며, 충열왕 18년 8월 초순에 수선사에서 미질微疾을 보이셨다. 다음해 정월 7일로부터 질고疾苦가 더욱 위중하여 10일 새벽에는 삭발목욕削髮沐浴하시고 자연히 입멸入滅하시니, 세수世壽는 68년이고 법랍法臘은 39년 이셨다. 동월 20일에 다비하여 귀골을 주워 모으니, 뼈마다 5색이 영롱하여 서기瑞氣가 천구에 사무치어 여러 날에 뻗치었다. 주상께서 들으시고 슬퍼하시며, 문도들에게 위로의 글을 내리시고 아울러 칙서勅書하여 시호를 원감국사, 탑액을 보명이라 내리셨으며, 수선사의 북쪽 기슭에 탑을 세웠다.

스님은 금문金文 보장寶藏을 모두 가슴속에 쌓아 두시고 자유자재로 수용하셨으며, 사림에 그 조지가 깊으셔서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붓을 들면 시구와 문장이 저절로 이루어지셨다. 스님은 평생 동안 상주문常住物을 아끼시어 함부로 쓰시지 않으셨으며 또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 조금도 꾸밈이 없고 배면背面하시는 일이 없었다. 그 성품이 관유하고 심정이 순박하여 사람을 사랑하시고 군생群生을 구원하심에 모두 본성 그대로셨다. 定慧社

묘적암지 妙寂庵址(南庵) 연혁

o 소재 : N 35°00'09", E 127°17'03", A 395m. 좌향 280°(서)

o 연혁 : 광해군(1608-23)때 중수(澄光山人 詠月學淸 찬)

원감국사 보명탑(6世)

o 소재 : N 35°00'12", E 127°17'02", A 380m. 좌향 290°(서) 높이 233cm

o 연혁 : 1293(고려 충렬왕 19년). 원감국사(1226-93)[1286-93]입적 후 건립
1866(고종 3년) 2. 도괴(도굴꾼)〈총섭 翌洪〉
1993부터 매년 遂寧 魏氏 참배 순례

사미반

도휴道休 | 사미

저는 이번에 사미반에서 생활하게 된 도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미반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능인스님과 승찬스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의견충돌로 자주 부딪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하심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능인스님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미반에서 생활하였고 가장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스님입니다. 딱 딱 쉬는 시간을 나눠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를 느끼게 하는 스님입니다. 시간을 나눠서 씻으러 갔다 오고 가끔씩 관음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온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딱 맞춰진 시간에 낮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자시절 선무도 라는 무술을 배운 스님이어서 그런지 몸도 단단하고 굵직굵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육질은 아니고요. 뭐 그런게 지금은 친해져서 상관 없지만 안 친해졌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다음은 승찬스님, 고향이 강원도도 아니면서 강원도 말투가 좋아서 강원도 말투를 쓰는 특이한 스님입니다. 그리고 항상 앉을 때마다 가부좌로 앉는 특이한 스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가부좌만 고집하는 고집 센 스님입니다. 비록 이름표는 선암사 스님이지만 행자 생활을 송광사에서 일 년 정도하고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수계만 선암사에서 한 스님입니다. 그러나 승찬스님은 몸과 마음은 언제나 송광사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성격은 조용한 것과 거리있는 스님이라서 나와는 장난을 많이 치고 항상 서로 말벗이 되어줍니다.
승찬스님은 이야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강원도 사투리를 쓰면서 그 중간에 영어 한 단어씩 넣어주는 센스! 영어문장은 안씁니다. So~ So~ OK, 전 이 두 단어 쓰는 거 말고는 다른 단어나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모습은 기억이 안납니다. 승찬스님과 이야기 해보면 이 두 단어만 존재하고 다른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항상 나와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는 승찬스님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교반 스님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대방 옆방이 사교반 스님들 수업과 공부를 하시는 장소인데 항상 시끄러운 저희 지대방 때문에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양보하면서 재미있게 생활하시는 능인스님, 승찬스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定慧社

졸음

진각眞覺 | 치문

종소리의 호흡을 느끼며 기다리는 예불시간, 무거운 시은을 받기 위해 앉은 공양시간, 새들이 일어나 지저귀는 상강례 대기 시간, 큰 소리에 신심을 모으는 소리 간경시간! 이들의 시간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익숙해짐이 하나요, 시작과 끝은 있어도 중간이 없는 것이 둘이요, 많은 이가 이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못 봄이 셋이요, 나의 의지이기도 하며 아니기도 한 '졸음' 이 그것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항상 뜨거운 공사시간을 경험토록 한다. 개인적으로 '졸음' 의 시간이 되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인世人으로 살 때는 새벽 3~4시에 자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긴장의 4시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니 정신이 몽롱해져가고 체력은 바닥을 쳐가도 항상 깨어있으라는 윗반스님들의 경책을 생각하며 눈을 부릅떠 보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고 손바닥을 꼬집으며 밤에 얼려놓은 찬 수건을 동원하기도 하고 결국엔 샤프심으로 자해(?)를 해보지만 번번이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수고했지만 또 졸았어! 우잉…"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왜 졸았으며 깨어 있는, 졸고 있는 이 물건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별로 신통한 답을 못 얻는다. 이젠 거의 화두 수준이 되어간다. 예전에 비해 졸음이 많이 줄긴 했어도 여전히 조금만 피곤해지면 다시 찾아오는 '졸음' 나의 오랜 습기에서 연유한 것일까. 집중력이 부족한 탓일까. 번뇌가 많으면 잠도 졸음도 많아진다는데 나의 번뇌가 치성한 것일까. 아직 쉬어야 할 것이 많은가. 의문! 의문! 투성이다. 지금은 잠과의 전쟁 중인 것이다.

절대 삼경 이외에는 눕지 않기, 차 많이 마시기, 식사 조절하기, 눈 크게 뜨기, 눈감고 간경 예불하지 않기,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한철이 지나가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다.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깜박이는 것을 알고, 졸음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려가고 있다.

재미있다! '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부분이 되어간다. 이 부분들은 레고 블럭과 같다. 좋은 것은 끼우고 나쁜 것은 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삼상三常을 부족히 하라는 말이 절실하다. 定慧社

강원 생활의 의미

자각自覺 | 치문

송광사 강원 치문반에서 생활한지도 어언 1년이 되었다. 처음 방부시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송광사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 처음 방부 시 낯선 환경에서 전혀 모르는 스님들과 함께 강원수행이라는 목적으로 4~5평 정도의 좁은 방에서 21명이 부대끼며 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속가에서도 성인이 되면 가족과도 각각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절집에서 그것도 전혀 모르는 스님들과 수행이라는 차원으로 한두 명도 아닌 21명이 좁은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좁은 방에 21명이 들어서면 방이 꽉차버린다.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다. 방이 좁아서 전부 눕지는 못한다. 반은 앉아서 휴식하거나 반은 비스듬히 눕거나 한다. 처음엔 초면인지라 어색해서 대화를 하기도 서로 서먹서먹하다. 그렇다고 또 대화를 안하고 앉아 있자니 그것은 더욱더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 세 달이 가면서 도반들끼리 서로 조금씩 어색함이 엷어져가고 분위기도 차츰 자연스럽게

되어갔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장난도 치고 자주 티격태격 한다. 21명의 도반스님들은 모두 각양각색이다. 지역도 서울,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대전 등 8도 사나이들이 전부 모였다. 나이는 또 어떠한가. 20대 초반에서 30대, 40대 중반까지 속가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뻘까지 되는 스님들까지 있다.
스님들의 형태도 다양하다. 얌전한 새색시 같은 스님,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아직도 소년티가 나는 스님, 좀 터프하게 생긴 스님, 식識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은 스님, 우둔하고 순발력이 없고 실수가 잦은 스님, 아무 말 없이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수양에 집중하는 스님, 틈만 나면 와선臥禪에 몰두하는 스님, 무언가를 항상 입속에 넣고 식선食禪에 용맹정진하는 스님, 기타 등등 모두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강원 생활이라는 것이 비유하자면 한 폭의 수채화와도 같은 것이리라.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 뒤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한 폭의 풍경을 그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중의 한 색깔의 물감이 지나치게 드러나거나 또는 모자라게 되면 그림은 실패하게 된다. 적당한 양의 물감이 적당한 부분에 조화롭게 칠해져야 한다. 대체로 나이가 많은 스님들은 속가에서 살아온 세월의 양 만큼이나 속가의 습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상이 강한 경우가 많다. 나이가 어린 스님들의 경우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 때가 묻지 않은 반면에 유혹에 약한 면이 있다.
참으로 여러 다양성이 좁은 방안의 모든 스님들에게서 나타나고 제각각 내 마음의 거울 역할을 한다. 서로서로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서로가 깎아주고 갈아줄 수 있는 것이 강원생활인 듯하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대끼며 깎이고 닳고 갈아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것이 강원생활이 아닌가 한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얼마나 깎이고 닳고 그리고 1년 전보다 빛이 날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도 3년이 남아있다. 그 기간의 생활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제행무상의 금언처럼 강원졸업 후엔 변화해 있을 것이다. 기왕이면 여법한 승려로서 변화해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눈팔지 말고 나의 공부에 최선을 다하리라. 定慧社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두윤頭胤 | 치문

을유년 첫 봄을 송광사 강원에서 보내게 된 것이 얼마 안 된 일인 듯 합니다. 어느덧 깨달음의 계절에서 다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거 결제 중 입니다.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내 스스로 돌아보고 참 나를 찾으려 했는가.
아직은 세속의 습관들이 남아서 때론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도반 스님들에게까지도 불편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속의 때를 씻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세속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귀를 보니 "대중 속에 있을 때는 토굴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이 하고 토굴에 있을 때는 대중처소에 있는 것과 같이 하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굴에서 혼자 생활 할 때는 대중과 함께 있듯이 엄격하게 하여 자신에게 틈을 주지 말며, 대중처소에 있을 때에는 비록 많은

스님들과 같이 있고 혼잡할지라도
토굴에서 항상 자연과 내가 함께
만족할 줄 아는 삶과 감사하는
생각을 하여 자신을 고요히
관찰하란 뜻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치면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당황하게 되고 실수 연발하게
되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진리와 계합하여 잘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학생들이 군중심리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자꾸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기본적인 도덕 개념도
많이 상실해가고 있고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어린이가 "와!
부처님이 치마를 입었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定慧社

우리반

태원泰源 | 사집

사집반 동안거를 결제한지도 벌써
보름 정도 지났다. 흩날리는 낙엽,
바람, 냄새 등에서 겨울의
한복판에 한층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먹물 옷을 입고
맞이하는 겨울의 느낌은 예전
세속에서 느끼던 맛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강당에 방부들인지가 어제 같것만
벌써 사집반이 거의 끝나가고
조금만 있으면 사교반으로 월반을
하게 된다.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년 남짓의 강원 생활을
돌이켜 보자면 만족스러운
부분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로 학업, 또는 도반 스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인데 주어진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심 내
자신의 나태함과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의 습관 때문인 것 같아
무척이나 아쉽고 부끄럽다. 남은
강원 생활 동안은 이런 부분이 좀
더 갈마되고 탁마되고, 내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모 되었으면 한다.
요즘 우리 사집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진 것 같다. 가을 산철에
평소 겉으로는 100% 건강하게
여겨졌던 도반 한 분이 예불
도중에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많은
스님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몸이란 단순히 한 인간의
육체일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법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아마 스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무할만 하다.
그러나 스님에게는 몸에 지닌 병
하나도 인연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그 질병 하나까지도 공부를
지어나가는 도반으로 삼아야
하기에 인위적으로 지나치리 만큼
건강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한편으로 그다지 좋아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를 지나쳐 건강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때 탐욕을
버려야 할 출가자의 본분과는 저
멀리 위치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체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법륜 法輪이 상전常轉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조금
지나쳐 보여도 나쁘지만은 않는
듯 하다. 아무튼 도반스님들
원하는 바대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여 지어나가는 공부
하나하나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定慧社

안성 석남사 회주
원공정무圓空正無 스님

이번 정혜탐방을 통해 찾아뵐 정무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석남사는 안성시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차를 달리면 다다르는 서운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 신라 문무왕 20년에 창건 되었으니 족히 1300여 년은 훨씬 더 된 고찰인 이곳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08호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인 16나한이 모셔진 영산전과, 마애석불과 석탑, 부도 등의 귀중한 불교 유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은 일주문을 위시해 법당 등에 내걸린 한글로 된 주련이었다. '효심 천심 불심 언제나 이 마음 수행도 봉사도 나날이 즐거워' 라고 쓰인 일주문의 주련은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귀들인데 소박하고도 솔직담백하신 스님의 성품을 보여 주는 듯해서 보는 이를 절로 미소짓게 했다. 기거하시는 인법당에서 탐방진을 맞이한 스님께서는 출가자로서의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지난 세월 동안의 경험담을 섞어 차분하게 풀어 나가셨다. 스님의 눈에 안차는 요즘의 후학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 스님께서는 강원에 있을 때는 경 보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질문지를 준비하는 탐방진보다 먼저 시작하셨다. 〈편집자 주〉

탄허 스님 수하에서 대교과를 마치셨는데 그 당시 일화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1958년도에 출가를 해서 법화경을 한철 배웠는데, 당시를 회고해 보면 어려워서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1960년쯤에 직지사에서 탄허 스님께 금강경을, 1963년에 화엄경을 배웠는데 아무리 강원의 명강사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 제방을 다니며 여러 스님들에게 경공부를 했지요. 오로지 두루두루 많은 명강사에게 배워야 합니다.

스님의 수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선지식과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도반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전강 스님이에요. 전강스님처럼 참선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은 없을 것입니다. 70세가 넘도록 남들과 똑같이 가행정진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도봉산 쌍룡사란 절에서 사부대중을 모아놓고 100일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을 하시던 이성근씨의 누님인 정진행 보살님이 스님의 법문을 평가하기를 "이것은 소설도 시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집중하게 해서 신심으로 이끄는 것이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오묘한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전강 스님께서는 불공을 하실 때 원칙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염불을 해도 줄였다 늘였다 자유자재합니다. 또 그분에게는 관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법문을 합니다.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중에 현생이 주인인지라 현생이 바르면 삼생이 바르게 되는데, 선망부모가 저승에 못가고 왜 방황을 하느냐, 바로 자식 생각 때문인데 자식이 올바로 되면 되는 겁니다. 전강 스님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분이 계시지만 탄허 스님께서 말씀하신 스님들도 다 업대로 된다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공 스님은 건축가라 잘못된 건물이 있으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요. 용성 스님은 번역 포교 하시는 분이라 그것에 힘쓰셨습니다. 어떤 스님은 농사를 짓고 어떤 스님은 사찰 일을 합니다. 다 자신의 업대로 된 것이지요. 그러나 스님들은 경전 보는 것만은 잊지 말고 중요한 일로 삼아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스님만의 가슴에 깊이 새긴 경전 구절이나 좌우명이 있습니까?

법구경 첫머리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반대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 같이' 라는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취미가 있으십니까?

내 취미는 부처님 경전과 신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취미로 마치 양쪽 날개처럼 하나는 건강이요 다른 하나는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면 약 안 먹고 병이 나면 스스로

내 취미는 부처님 경전과 신앙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취미로 마치 양쪽 날개처럼 하나는 건강이요 다른 하나는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면 약 안 먹고 병이 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연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지요.

치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연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삶이지요.

그리고 등산, 성지순례와 같은 여행입니다. 인도에 14번을 갔다 왔는데 똑같은 코스를 14번씩이나 가니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한두 번이지 인도같이 척박하고 고약한데를 14번이나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으면 신도들 또한 인솔해서 경험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14번을 갔지만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과거의 성인들의 위대한 유산 앞에 경탄과 환희로 날마다 새롭기만 합니다.

석남사 대웅전 모습

출가 인연이나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팔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중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사연이 없습니다.

본래 어려서부터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 당시에 소설가라고 학교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보기도 했는데 부처님 사상이 가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수행하시다가 1968년도에 신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는 교계 최초로 여름 수련회를 여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68년도에 출가한지 10년 만에 영주 포교당 주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주 포교당이란 곳이 대처와 비구 양측이 다툼으로 절주지가 공석이었습니다. 고운사 말사였는데 비어 있었어요. 하여간 무슨 마음을 내어서 그곳에 가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당시 어느 겨울날 조인자라는 분의 집에서 하루 묵었는데 그분이 다니던 영주 포교당의 주지가 대처, 비구 싸우는 통에 6명이나 바뀌어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리를 겪고는 화병이 나서 못살겠다고, 개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살겠다고 했지요. 그리곤 바로 쌀 몇 대를 싸매고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자마자 백일 동안 도량석을 시작했어요. 시내를 도량석으로 도는 겁니다.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당시 새벽 4시에 울리던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보다 더 정확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결제 중에도 만행하던 스님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스님들과 절에서 자고는 새벽에 도량석을 같이 돌곤 했어요. 그렇게 백일 동안 하니까 신도들이 한 분 두 분 나를 주지로 대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4월 초파일 봉축식을 했습니다. 신도분들이 한 500분 왔어요. 그 이후 절에 오시는 신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멀까 생각해보니, 그 당시 대학생 대상의 수련회라는 것은 있었는데 신도 법회는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신도가 이 나라 불교의 큰 공로자고 100년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3시 기상, 4시 예불, 5시 좌선, 6시 공양, 7시

청소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하면서 정각에 시작하고 10분전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후에 잠깐 쉬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밤 10시까지 계획대로 수련회를 했더니 당시 같이 하던 광덕스님은 아주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면서 못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수련법회를 다 꾸려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꾸려서 재미있게 하니까 신도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영주 포교당에서 하다가 대구에 있는 보현사의 수련 법사를 했지요. 그러다가 교구 규정부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수련회 활동이 좋게 인식되어서 였던가 봅니다. 나중에는 용주사 주지를 맡아 달라고 해서 12년을 했어요. 자신의 어떤 원력을 세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즈음에는 산사 음악회나 템플스테이 등 각 사찰차원에서의 행사가 다양해졌는데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련회를 해 보니까 2박 3일 정도면 딱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조직적으로 여럿이서 일사분란하게 해야 혼자 하는 것보다 잘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주는 신심의 배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산사음악회나 이런 일방적인 행사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스님들 개인의 역량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수련회를 하는 동안 그 엄격한 프로그램 속에서도 도망가는 신도들 한분도 못 보았습니다. 신도들은 그 과정을 통해 신앙행위를 확인합니다. 그저 수동적인 행사를 통해서는 별 효험이 없습니다. 스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수원에서 70년도 때부터 전국 학생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찰에서 시끄러워서 수행에 방해된다고 수련회를 꺼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 받았지요. 그 수련회를 통해 수천명이 거쳐 나갔습니다. 그때는 부모은중경을 읽어만 주어도 눈물을 흘리는 시대였습니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면 신도들 절에 다옵니다.

출가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스님으로 나이 먹어 늙어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일종의 노후보장문제인데… 종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젊을 당시 사사롭게 포교를 하거나 신도 동원해서 절을 짓거나 과수원을 하거나 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사실 전부 타락을 의미합니다. 지금보아도 당시 그렇게 한분치고 중노릇 잘하고 있는 스님 드뭅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자는 그렇게 살지 말고 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영주 포교당에서 소임을 볼 때 젊은 부전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어떤 신도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30년 된 한삼 모시 한필을 옷 해 입으라고 그 스님께 주었답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 스님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보

지금 간화선이 위기라는 말들이 많은데 한국불교는 예전부터 어른스님들이 간화선으로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러한 전통적 입장에서 간화선을 최고로 인정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출가 수행자 개개인의 근기가 다르다보니 간화선이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근기에 맞춰서 수행의 방편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는 겁니다. 젊은 신도가 30년 된 옷감을 젊은 스님께 준다는 건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어느 노장 스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스님은 경우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심이 들어가는 삶이 아닌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은 간화선 중심인데 요즘 위빠사나 같은 남방 쪽의 수행법도 유입되고 있는데 스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간화선이 위기라는 말들이 많은데 한국불교는 예전부터 어른 스님들이 간화선으로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러한 전통적 입장에서 간화선을 최고로 인정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출가 수행자 개개인의 근기가 다르다 보니 간화선이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근기에 맞춰서 수행의 방편을 찾으라는 겁니다.

간화선 수행이 어려우면 염불을 통해서 수행하고 경전공부를 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스님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은 없으십니까?

강원에서는 경전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말로 된 것이라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원력도 그림이 그려지고 근기에 맞게 진로도 결정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출가자는 단지 중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중이 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형편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속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보면 전부 독기가 흘러넘칩니다.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님들이 노력해서 바꿔주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인들의 인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인성이 되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명正命이 됩니다. 정명이 될 때 자비, 봉사, 순결 등의 정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고 바르고 아름답고 착하고 성스러움입니다. 인성이 갖추어 지지 않은 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은 돌이켜 볼 줄 모르는데 말입니다.

스님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원력이나 계획은 무엇인지요.

태교육胎教育에 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잘 교육받아서 나와야지 세상에 태어나서 받는 교육으로만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정보다는 밖의 일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부처님 말씀에도 "여성은 가정의 주인이다. 주인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밖으로 돌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의 주인 역할에 충실한 어머니들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루의 일과와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4시에 모십니다. 원래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모시지만 혹시나 공양 전까지 시간이 나면 졸지 않을까 싶어 4시에 모시지요. 그렇게 예불 후 좌선하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자연건강법 중에 하나인 풍욕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신도들 상담이나 독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건강합니다. 건강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벽시간에 부지런해야 몸에 병이 안 납니다. 병이 나는 세 가지 이유가 운동부족, 산소부족, 생수부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90 %가 병이 납니다. 반대로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은 90%가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공양 시간은 철통같이 제 시간에 먹어야 하고 식사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또한 약을 자주 먹어도 안 좋습니다. 약 자체가 사실 독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먹다 보면 몸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무큰스님과 대웅전 앞에서의 기념촬영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일부에서 스님들의 노후문제를 걱정해서 스님들을 위한 양로원이나 복지정책을 거론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출가자로서 어울리는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80세가 넘으시도록 살면서 열반하시기까지 길 위에서 걸식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복지관이니 양로원이니 해서 스님네들의 노후 삶을 준비하자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출가자는 어려우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풍요로워지면 속가의 가족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출가자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定慧社

원공정무 큰스님은 1931년 전북 군산시에서 출생하여 1958년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 하셨습니다. 19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을 법사로 대교과를 수료하셨으며, 196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셨으며, 이후 김제 흥복사, 대구 동화사 선원에서 6하의 안거를 나셨습니다.

1968년 영주 포교당의 주지를 시작으로 1971년 제 2교구 용주사 주지, 1982년 대불련 경기도 총재, 1982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 1983년 여주 신륵사 주지, 1986년 범민족 울림픽 추진위원 등을 역임 하셨으며, 1987년 대구 법왕사 회주, 2000년부터 경기도 안성 석남사 회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목우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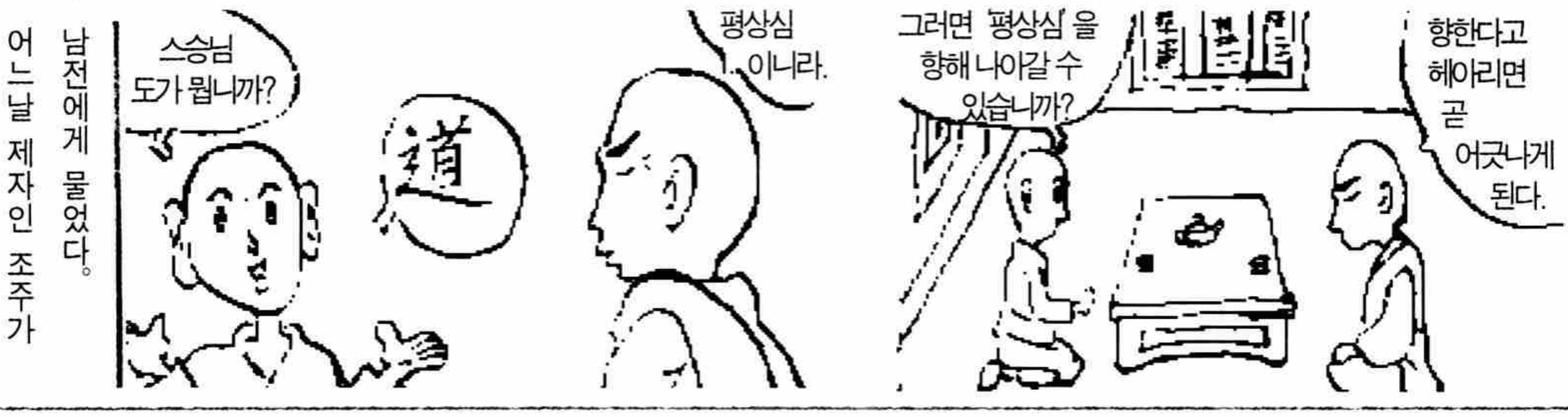
구자무불성拘字無佛性

글·그림 서림西林 | 사집

조주중심(778~897)선사

(개)에게는 佛性이 없다

구자무불성狗字無佛性



헤아리지 않는다면 어찌 '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아는 데도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잘못된 깨달음이요, 모른다는 것은 멍청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헤아리지 않음의 도에 이르게 되면

마치 태허와 같이 넓고 텅 비게 되니

어찌 억지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남이 갸기를 들었다。
날 전스님에게 고양이 죽인
어느날 외출에서 돌아와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아깝다. 네가 있었으면 살렸을텐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가르침을 폈다。
에서 머물면서
조주선사는 관음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멍청이들이 헤아리고 있구나!

부처님과 나와의 소중한 인연

능인能印 | 사미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접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절에 가보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여기 송광사까지 오게 되었는지 가끔 생각을 해보면서도 잘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1년 전 무작정 선무도라는 무예를 하기 위해 경주시에 있는 골굴사라는 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이것저것 생각 않고 절에서 한 번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온 것이다. 그전에도 이것저것 무술들을 조금씩 했지만 '스님들이 하시는 무술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골굴사의 일주문에 들어섰다. 처음 통과해 보는 일주문, 왠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적막한 것이 단지 들떠 있었던 내 가슴을 억누르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먹는 절에서의 공양을 마치자마자 저녁 수련에 참가했다. 신이 나서 저녁 수련을 끝마치고 기분 좋게 산사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첫 예불을 맞이했다. 새벽에 첫 예불을 맞이하는 순간, 왠지 가슴이 울렁거리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알 수 없었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시작된 부처님과의 인연이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점점 예불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나를 볼 수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은 뒷전으로 가고 기도하고 예불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만 갔다. 틈만 나면 법당으로 올라가서 절도 하고 간절히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처음으로 삼천 배도 해보고 어떤 때는 그곳의 스님들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염불하는 시간도 더 많아서 눈총 아닌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기도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은사스님께서 차를 한잔 마시자고 부르시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으로 올라가니 하시는 말씀이 "김처사, 자네 머리 깎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적잖이 당황했다. 갑자기 받은 제안이라 대답을 뒤로 미룬 채 방을 나왔다. 그때부터 마음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머리를 깎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그렇지만 전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

스님께서는 자꾸 재촉을 하셨다. 그럴 때마다 완강히 거부를 했다. 그러는 중에도 내 생각은 '아니야. 절대 중이 될 수가 없어.' 하면서도 먹물 옷을 입고 싶은 충동이 가끔 일어나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도중에 어느 날 법당으로 향해야 할 내 발걸음이 은사스님의 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결정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스님께 가서 머리를 깎겠다고 말을 해버린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한 것이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송광사라는 최고의 사찰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어떻게 중노릇을 제대로 할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아가는 방향을 부처님께서 잡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만 할 것을 생각할 뿐이다.

나는 좋다. 먹물 옷이… 定慧社

보조국사 지눌 스님께

신해信解 | 치문

안녕하세요. 보조국사 지눌 스님. 저는 먼 훗날의 후학으로써 스님께서 결사를 하신 정혜사 큰방에서 스님께 편지글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기 2549년 동안거가 시작 된지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 스님께서 생활하신지 먼 훗날에 제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지요.

가끔씩 송광사 도량을 다니다보면 스님의 자취가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비록 옛 건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스님의 감로탑 이라던가 능견난사 등 아직 스님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님 당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면 옛 스님들 생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스님은 저희 후학들 중에서도 송광사 학인들에게는 아주 큰 우상인 것 같아요.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전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모든 면에서 스님이 항상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 요즘 들어서 저에게 의문점이자 고민거리가 있답니다. 그것은 하심下心에 관한 것인데요. 처음 강원에 들어오니 윗반 스님들이 하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어느덧 생각의 여유가 생기자 기본적인 하심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심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며 무엇이 하심인지가 궁금하네요.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시봉을 잘 하라는 말 같아요. 부처님께 저희가 양족존을 하듯이 시봉하라는 말이 하심 같아요. 하지만 아직 다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저도 몇 달 뒤면 사집반으로 올라 갈 텐데 밑에 반이 들어오면 저도 하심 하라고 해야 될 텐데 제 자신이 하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려니 괜히 부끄러워지네요.

그러고 보니 편지를 쓰는데 제 소개를 안했군요. 저는 1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같은 승려이시며 태고종에 계세요,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랑 다니는 것에 거리낌이 있었는데 제가 같은 길을 가니 서로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답니다. 저의 은사스님은 '각진' 이라는 법명을 쓰시는 분이고 저는 완주에 있는 송광사에서 출가를 했어요. 스님이 계시던 곳과 이름이 같죠. 20살에 사미계를 수지했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런데 승복을 입었을 때 무척이나 옷이 무겁더라고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신해라는 후학입니다. 은사스님이 바다처럼 넓고 깊이 부처님을 믿으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이상 제 소개를 마쳤어요. 비록 짧지만 편지를 통하여 스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봤지만 스님께서 이 글을 읽어 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 후학 신해는 앞으로의 스님의 길을 가고자 함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며, 스님은 꼭 지켜봐 주시고 초심이 변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세요.

- 후학 신해 합장 - 定慧社

스님 군대가다

지륜知輪 | 치문

나는 복학생이다. 복학생이란 말 그대로 복귀한 학생, 즉 도중에 나갔다 왔다는 말이다. 그 사유인즉 대한민국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 1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왔기 때문이다. 맡은 직책은 육군사관학교 법당 군종병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군종병으로 발령 난 것이 아니었다.

입대 전에 혼자 생각하길 '키도 적당하고 아픈데도 없고 신체 등급도 1급이니 전방에 박격포나 짊어지고 열심히 쏘다가 오겠구나. 이왕 열심히 생활해서 최고의 군인답게 빡세게 살다오자' 라는 생각으로 당당히 일반병으로 지원해 논산훈련소로 입대했다.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사격이며, 각개전투, 유격, 수영 등 수많은 힘든 훈련을 다 마치고 보급특기를 부여받았다. 나중에 꼭 연락하자며 같이 껴안고 눈물 흘리던 전우들과 헤어져 종합군수학교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다. 거기는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 3대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이었다. 여기서 3주 동안 먹고 자고 보급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배우며 금새 훈련기간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자대인 육군사관학교에 배치를 받았다. 보급특기를 활용할만한 곳이 보급대와 본부중대 이렇게 두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본부중대로 소속이 되어 맡게 된 임무가 본부근무대 행정실의 보급계열이었다.

진짜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생활하길 3개월, 이등병이 끝나갈 때쯤 되니 이제 알거 다 알겠다 똑같은 생활의 반복된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정말 악몽이었다.

'차라리 군종병으로 갔으면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을 건데… 아!~정말로 군종병이 되고 싶다' 하며 맘속으로는 이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가 빠지고 싶다고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당의 상황도 모르고, 내가 빠진다면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할 것이며, 또 가르치고 적응시켜야 할 사무실 고참이나 내무실 바로 윗고참이 또 막내생활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아 그 맘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중대에서 초파일 작업인원을 뽑는다 하여 쭉 집합해 있는데 주번 하사가 남는 인원이 나 밖에 없다 하여 법당 작업을 다녀오라고 했다. 법당에 올라가서 '산바람이나 좀 쐬다 와야지' 하며 올라가서 땀 흘리며 닦은 의자만 300개, 다 닦고 나서 한참 연등을 만들고 있던 보살님들에게 또 뭐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좀 쉬라고 하여 법당 옆 정원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한참 즐기는데 한 보살님이 쵸코파이를 가지고서 나에게 다가와 말하길 "법당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전에 했던 생각이 떠올라 "아니요, 생각없습니다"하고서는 보살님이 가져다 준 쵸코파이를 먹는데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법사님이 부르는 소리에 "이병 홍길동!"하며 달려갔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이등병이네. 홍길동이라… 이제 내려가 보게" 하시기에 중대에 복귀하여 점심밥을 먹으로 가는 길이었다.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한참 흥분해하며 달려온 대구출신인 내무실 바로 윗고참이 "니 오늘 법당 가서 무슨 일 있었노. 솔직히 말해라 알았나!" 하기에 무슨 일 있나 하는 표정으로 있었던 일을 솔직히 다 말했더니 "니 진짜가"하며 "그럼 니 법당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 모꼬"하는 거였다. '아니 진짜 나도 황당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법당에 가게 된다니…'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고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대장님한테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내일부터 법당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럼 사무실의 빈자리는 어떻게 합니까"물으니, "경비중대에 보급특기를 가진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급특기를 받았는데 초소경계만 서고 있다고 어제 국방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되었는데 마침 그 병사가 오기로 했다"라고 하였다.

이게 어떻게 바퀴가 돌 듯 이가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틀 뒤 과장님이 나를 차에 태워 법당에 내려주며 "법사님, 애 좀 잘 봐주십시요" 하고서는 뒤도 안돌아보고 가버리셨다. 하긴 열심히 일 다 가르쳐 놓았는데 뺏기는 격이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고 난 뒤 다음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당에 올라가 새벽예불을 드리며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불보살님의 위신력 덕분이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定慧社

어느 죽음 앞에서

혜산慧山 | 사집

치문반을 마치고 맞이한 방학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서울에 있는 은사스님의 절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막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영가를 위한 막재였습니다. 재를 지내는 내내 한 중년의 처사님께서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을 따르고 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영가분과 친인척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불교식 절도 어설프게 하시고 스님께 합장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당 안에서의 의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소대로 향했습니다. 소전진언에 맞추어 막내인 제가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어 불길 속으로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제 손을 잡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그 처사님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뺐더니 잠시 동안을 묵묵히 그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보일 듯 말듯 한 눈물이 고인 채 말입니다. 그 몇 초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잠시 바라보시던 처사님께선 예의 그 무뚝뚝한 표정과 무뚝뚝한 말투로 "이제 됐소"하며 다시 제게 사진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뒷걸음질로 자리에 돌아가 조용히 눈을 감는 그 분의 모습에서 그제야 비로소 그 분이 영가분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죽음이 다 슬프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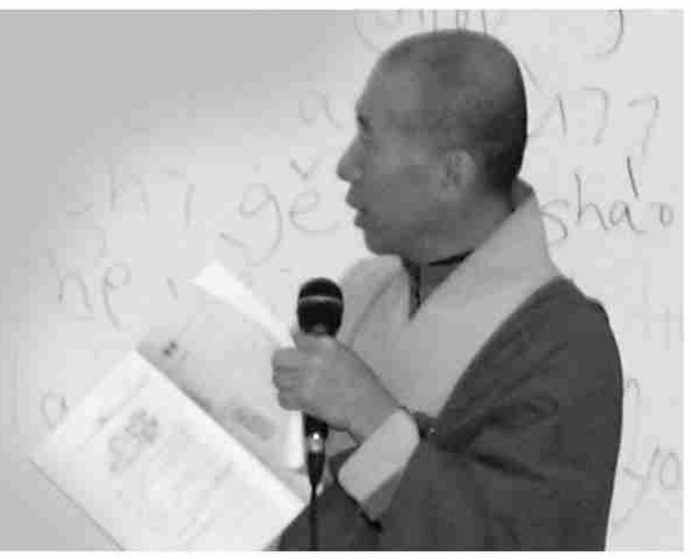
"사람이 태어나면 왜 꼭 죽어야만 하죠"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묻는 한 꼬마에게 누군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옛날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지금 네가 딛고 서 있을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숨 쉴 공기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러나는 거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하지…"

막연히 죽음을 알고는 있지만, 마치 숨을 쉬며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 지금까지 늘 '살아만' 왔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들어오지만 몸으로는 느끼질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는 남의 죽음을 보고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사형수에겐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에 삶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제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겠지요. 언젠가 저도 다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당하여 당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定慧社

불교의 지관수행 止觀修行

무애無碍 | 松廣寺講院 講師



길을 가는 사람을 한자로 적으라 하면 道人, 道士(혹은 道死 ?)라고 적을 수 있겠다. 조금 코믹하게 말하자면 수행하는 사람을 道人 혹은 道士라고 해야 할 텐데 道士라고 안쓰고 道死라고도하며 억지를 부릴 수도 있겠다. 우리 불교사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道士대신, 道死(길에서 돌아가신 분)라고 하여도 전혀 어불성설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을 들라면, 길에서 나시어서(走行七步 說 天上天下 唯我獨尊- 태어나시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고 선언하심), 길에서 교화를 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다(아난에게 열반에 들것을 예견하시고 구시라 까지 몇 달을 걸어가신 후 열반에 드시었다). 참으로 삶의 여정이 길을 떠나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길과 관계가 깊다.

이제 길 얘기를 좀 더하여야겠다. 우리가 먼 길을 가야하는 수행자라면 길은 우리에게 목표이자, 모든 과정일 수 있다. 가야할 길을 정확히 알고 준비했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세간에서도 '극기훈련' 이다 하면서 정신을 강화시키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서 지도를 따라 목표물 찾는 훈련이 있다. 내용은 낮이나 혹은 밤에 달랑 지도 한 장 던져주고는 어디 목표지점까지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생판 낯선 길을 오직 지도 한 장에 의지해서, 목표를 찾아내는 것은 설사 대낮이라도 쉽지 않은데, 더욱이 밤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 작가가 쓴 "길없는 길"이라는 불교 장편소설을 읽을 때 일단 그 제목에 매료되었다. 우리가 가야할 먼 길, 그 길은 지도도 없고, 한 시각이나 한 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다. 한 생을 혹은 몇 겁을 닦아서 가야 할 길이다. 이런 멀고 어려운 길에 우리가 안내나 지도자 없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곤란한 일인가. 그래서 전강선사 법어 가운데 달마스님을 인용하면서, 선지식이 없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면 "천명이 수행하더라도 천 한명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아주 과장된 표현법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수행에 있어서 선지식의 안내나 지도가 필요한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면, 선연한 느낌이 든다.

당장 불교를 말할 때, 우리 부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도 바로 선지식을 찾아서 유행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티벳 서적 가운데 밀라레빠라는 간단한 책에도 선지식을 찾아서 수많은 고생을 하는 대목을 보면 정말 처연한 생각이 든다.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구법행각을 하는 것이다. 이제 재가와 출가 불자들이 모두 부처님 따라 수행의 길을 가야한다면, 이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차대한 일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교 수행의 요체는 한 마디로 말하면 '止觀' 수행이라고 하겠다. 불교를 볼 때 진리론은 연기로 설명되고, 수행론은 止觀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불교진리는 언급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인 수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수행을 가장 주요한 한 마디의 key word로 말하라고 한다면 '止觀'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부터 부처님 당시의 근본 불교에서 부터, 아비달마(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거쳐 밀교에 이르는 수행의 요소를 止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조사선도 止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1. 근본불교 수행

몇 년전에 불교방송에서 미얀마의 고승이신 "우빤디따"사야도의 초청법회가 있었는데 주로 『대념처경』과 관련하여 남방의 근본불교 수행에 관한 법문이었다. 그 가운데 주요한 止觀에 관한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마타(止, steady and stable, be still. be static)란 안정, 고요의 의미이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도록 닦는 수행이다.

경전에 사마타를 닦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닦는 대상도 여럿이 있다. 보통은 사념처인 身(몸), 受(감정,느낌), 心(마음), 法(진리)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대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마음에 오래 머물러, 오염된 것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강하고 확고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마음집중인 사마타 수행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여러 대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만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이 대상 하나에 마음이 머물러 안정되고 평온해 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잃는 것이 많게 된다. 즉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것저것 원하고, 좋은 것을 듣고 보고 만지고 소유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생긴다. 반대로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을 땐 화가 난다. 마음이 충족을 얻을 만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만심이 생기고, 반대로 얻지 못할 땐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오염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정이 없으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이치이다. 예를 들자면 호흡법에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인 것이다.

다음은 위빠사나(觀)인데,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 순간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대상을 겨냥해서 확고히 대상에 머물러서 계속 관찰하게 된다. 각 대상을 뚜렷이 구별하여서 알게 되고, 그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여 생멸, 무상, 무아의 이치를 알게 된다. 이 위빠사나의 지혜가 단계적으로 향상하여 발전하면 四果(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를 얻게 된다. 止觀에서 먼저 止를 닦고 다음에 觀을 닦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물론 남방 선지식의 가풍에 따라 선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원론적인 것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앞서 사마타(止)가 이뤄져 대상과 앎이 구분되는 등 무상, 고 ,공, 무아가 되면 비로소 위빠사나(觀)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앎이 이뤄질 때, 번뇌의 악법은 막아지고, 좋은 선법은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마음에 번뇌가 생기지 않고 선법을 명확히 알게 되어(무상, 고, 공, 무아 등의 진리) 정견이 생기므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 번뇌를 없애가게 된다. 이상 止와 觀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런 수행법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아비달마(소승불교)에 대하여 살펴보자.

2. 아비달마 불교 수행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져 왔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법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학문적으로 정리된 결정체가 바로 『청정도론』이다. 남방불교 수행의 근본 지침서라고 하면 당연히 『청정도론』을 꼽는데, 그 내용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근년에 청정도론 한글번역이 나와서 남방불교 수행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청정도론』 해제에서 논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까 한다. 이 논서는 불교의 수행체계를 계 · 정 · 혜 삼학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설명한다. 戒품은 얼마나 많은 戒가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계를 여러 가지 분류하여 설명한다. 그 다음 계목의 단속, 감각기능(根)의 단속, 생계의 청정 등을 설명한다.

우리 주제와 관련된 定(止)과 慧(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定품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매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 것이 지관수행에서 아주 중요하다. 定품은 40가지 삼매를 닦는 주제를 설명한다. 삼매증득의 대상인 까시나kasin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들숨날숨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설명한다. 까시나를 통하여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증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초선에서 4선에 이르는 선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삼매수행의 자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끝으로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항목에서는 신통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대승불교, 특히 조사선에서는 일체의 과정을 漸修로 보아서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 선수행에서 생기는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 특히 신통이 생기는 것을 魔(魔障)이라고 하여 일체 무시하고, 언급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 이다. 수행에는 순일하게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 이런 逆順의 경계를 당해서 어디쯤 수행단계에 와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중도에 막막함으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慧(觀)품에 대하여 보자.

慧품은 통찰지혜를 중요시 여긴다. 근본진리의 내용인 오온. 12처. 18계. 육근. 4제. 12인연 등의 법들을 토양으로 하여, 청정(戒청정과 定청정의 항목)을 몸통으로 하여 이것을 통해서 道와 果와 涅槃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오온과 12처를 비롯해서 12연기 등 불교의 근본 법수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불교의 진리가 다만 이론의 체계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아비달마(法)의 정확한 설명은 위빠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戒와 三昧(止)가 이루어지면 見청정에서 知見청정까지의 수행단계가 계속된다. 여기서 見청정이란 정신과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如實知見이다. 아비달마의 81가지 법에 대한 정확한 지견이다. 개념이나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삼매인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질과 정신의 파악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수행이 위빠사나이다. 지견(如實知見)이 정신과 물질에 대하여 조건인 緣(緣起法)을 파악함으로써 三世에 대한 의심이 극복된 확고한 지혜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道와 道아닌 것에 대한 경계(광명. 희열에서 평안과 욕구에 이르는 10가지 항목)가 나타나는 데 이것이 확실히 체험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신통이나 마장이 진리와 혼용되었을 때 보다 명확하게 사제 등의 진리를 확립하는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四果에 따르는 道에 대한 知見청정이 확립될 때까지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상이 慧(위빠사나, 觀)수행의 개요이다. 앞서 근본불교에서 언급되었던 수행의 지와 관의 항목이 보다 조직적으로 정비된 수행체계가 바로 『청정도론』이며, 아비달마 불교의 완성으로 본다.

3. 초기 대승불교 (반야부 계통) 수행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압권은 『대품반야경』 600부인데, 이들 방대한 경전에 대한 논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智論)』과 미륵보살이 지은 『현관장엄론』이다. 우리들에게는 『대지도론』이 많이 알려져 있고, 『현관장엄론』은 전문학자들이 아니면 매우 생소하다. 왜냐하면 『현관장엄론』은 한역이 존재하지 않고 산스크리트 본과 티벳 본만 전하기 때문에 북방경전에 익숙한 우리들 일반에게 당연히 생소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논서가 반야부 경전을 대표하는 논서인데도 성격상 크나큰 차이가 있다. 『대지도론』이 모든 불교의 사상과 역사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불교백과 사전이라고 한다면 『현관장엄론』은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수행체계를 확립한 논서이다. 그러므로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우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야부 수행중심의 논서인 『현관장엄론』의 수행체계에 대하여 언급할까 한다.

『현관장엄론』은 깨달음(現觀)수행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綱要書이다. 즉 ①일체상지성 ②도지성 ③일체지성 ④일체상현등각 ⑤정현등 ⑥차제현등 ⑦찰나현등 ⑧법신 등이다. 위의 단계에서 일체상지성, 도지성, 일체지성은 현관(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야바라밀을 여래, 보살, 성문 등의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인 일체상현등각, 정현등, 차제현등, 찰나현등은 반야바라밀의 활동에 의해 구경의 깨달음을 이르는 수행단계를 말한다.

말하자면 가행단계서부터 견도와 수도 단계까지를 설명한다. 다만 점차단계와 찰나단계의 구분이 시간적으로 있기는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수행단계에서 대승 보살이라도 소승의 수행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방편의 도(도종지)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승보살이라고 해서 소승을 폄하하여 그냥 뛰어넘어 이념적으로 현란하고 광대한 수행으로 일념에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했던 근본불교와 아비달마 불교의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8단계의 수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반야부 계통은 지혜(智)를 중시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도 세 가지 智(삼종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三種의 智는 위의 8단계중 첫 세 단계인 일체상지. 도종지 및 일체지이다. 일체상지는 부처님께서 갖추는 완성된 지혜이고, 도종지는 보살이 갖춘 지혜이고, 일체지는 성문이 갖춘 지혜이다. 그런데 각 지혜가 독립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성문에서 보살단계를 거쳐야 부처님의 일체종지(일체상지)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단번에 佛智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성문과 보살의 수행단계인 가행, 견도, 수도 등을 모두 차례로 섭렵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본불교와 아비달마 불교 수행론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번쇄하여 설명은 생략한다.

4. 중기 대승불교 (유식계통) 수행

인도 대승불교의 2대 사상이라면 중관사상과 반야사상이다. 먼저 반야부 경전의 사상이 2~3세기 출현한 용수보살에 의하여 정립되었다면, 유식계 경전은 반야부를 이은 중기 대승경전이다. 해심밀경(3세기경)이나, 능가경(4세기경)이 주요한 유식계 경전인데 이를 종합한 논사들로는 미륵, 무착과 세친보살이다. 대표 논서로는 『유가사지론』 100권이 있다. 이는 무착의 저술로 300년 경에 성립된 것으로 유가행파의 기본적인 논서이다. 유식사상은 반야사상보다 더 철저히 아비달마 불교 전통을 잇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사 12년에 유식 3년이라고 하듯이 진리의 체계나 수행체계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예컨대 제법에 대한 분류도 5위75법의 구사론체제와 5위100법의 유식체제가 틀은 유사하다. 당연히 수행의 계위도 견도위 수도위에 이르는 四果의 소승불교 체계나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에 이르는 5위의 유식 수행의 행상도 체제상 대동소이하다. 다만 번뇌를 멸진해 가는 과정의 깊고 얕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제 유식계 대표논서인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보면, 크게 5분으로 나누는데 가장 주요한 本地分에서는 17지地로 나누어 설한다. 특히 제13성문지와 제14독각지는 소승의 수행체계를 설명하고, 제15는 보살지를 설하고 있다. 자세히 소개할 지면은 없지만, 논서의 성립체제상 성문지와 독각지를 통하여 소승의 수행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보살지를 설하고 있어서 수행이 소승의 행상을 기본으로 섭수하여 대승 보살의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5.천태 지관수행

지금까지는 인도에서 형성된 불교의 흐름을 불교사입장에서 조명해 보았다. 다음은 북방불교의 발달지인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법화경의 천태사상을 통하여 지관수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선종이 형성되기 전에는 천태사상이 실질적으로 선을 대표하는 수행종풍이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보면 법화경을 근거로 하여 발달된 종파라서 교종이라는 생각을 흔히 하기 쉽지만, 천태의 사상적 구조는 敎觀이다. 즉 교리체계는 敎이고 이에 맞춰서 觀行의 수행체계를 조밀하게 조직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후래의 조사선은 천태의 수행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법화사상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會三歸一(會三乘歸一乘 : 삼승을 거두어 일승으로 돌아간다)과 性具思想(법성이 본래 갖추어 있다)이다. 이런 사상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삼승의 방편을 융합하여 일승으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다. 일승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삼승보다 우월함으로 인하여 차별화하고, 격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넓게 삼승을 모두 포섭한다는 사상이다. 이제 천태의 교리체계는 생략하고 수행체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천태대사는 수행체계를 3종 止觀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차례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지관으로 『차제선문』을 저술했다. 다음은 頓漸의 법문을 서로 교차하여 얕은 행법은 깊게 하거나 반대로 높은 행법을 낮게 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수행은 『육묘법문』이다. 끝으로 최상승의 원교의 실천체계가 완성된 것이 바로 『마하지관』이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점차지관』은 '禪'을 중심으로 하여 세간선, 역세간역출세간선, 출세간선, 비세간비출세간선의 분류를 통해서 호흡과, 육체와 마음을 관찰하는 선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부정지관』은 수식관을 중심으로 선수행을 조직하는데. 數, 隨, 止, 觀, 還, 淨의 단계를 두어 수행자의 편의에 따라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자유

롭게 바꾸어가며 수행하는 체계이다.

『마하지관』은 앞의 수식관 수행을 하더라도 순서에 따르거나,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원만하게 증득하는 수행체계로 이뤄져 있다. 내용의 다섯 가지 요약은 ① 발대심에서 사홍서원의 발심을, ② 수대행에서는 보리심에 상응하는 4종 삼매수행, ③ 감대과에서 삼매수행에 의한 중도 증득후 과위에 들어감, ④ 열대망은 교화의 행을, ⑤ 귀대처는 법신, 반야와 해탈의 삼덕으로 돌아가는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천태수행은 구조의 단순과 복잡, 혹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삼매(止)와 관행(觀)으로 그 중심체계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6. 밀교수행

밀교는 후기대승에 발달한 불교이다. 인도에서 발생되어 가장 원만하게 전승된 곳은 티벳이다. 이미 인도에서 불교가 쇠망하므로써 후기 대승의 범본전적이 많이 소실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티벳에 전하여 내려오는 밀교의 전적은 가히 후기대승불교 전적의 보고라고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굴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행체계도 후기대승의 내용이 가장 원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현대 티벳의 밀교수행체계는 쫑카파(1357-1419)대사가 확립한 이래 밀밀히 전승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수행체계에 관한 저작은 『Lam Rim』(보리도차제론)이다. 이전까지는 티벳본 중심에다, 겨우 영역본 정도였다. 다행히 최근에 청전스님이 18년째 달라이라마 휘하에서 법문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Lam Rim(보리도차제론)』 번역을 세계 세 번째로 한국어 번역판을 내어서 여간 다행한 것이 아니다.

이제 후기대승 밀교의 수행체계를 『Lam Rim』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 예비수행을 거쳐, 사자(스승과 제자)간의 求法의 유형을 설명한다. 三士(下士, 中士. 上士)의 차제 단계의 근기 수행이 자세히 소개 되어있다. 이중 상근기의 上士道의 수행은 전체 내용의 2/3을 차지하고 그중에서, 또 止와 觀수행이 2/3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지관수행이 밀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三士의 내용은 세간도(下士)와 성문.연각도(中士)와 대승의 보살도(上士)의 세 가지로 각각 구분된다. 여기서도 보살도가 중심 수행구조이지만, 세간과 성문. 연각의 수행도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 보살도의 내용은 당연히 육바라밀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止와 觀의 수행이다. 내용은 반야경을 근본으로 하고, 유가행파의 수행(『현관장엄론』)론을 도입하여 잘 융합하여 조직하고 있다. 止와 觀을 나누어 설명하고 나서는 止觀을 함께 닦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밀교의 金剛乘을 시설하여 『비밀도 차제론』으로 도입을 유도한다.

7. 선종의 수행

중국선을 조사선이라고 부른다면, 조사선은 특수한 선의 성격을 갖는다. 교종에서 닦는 수행을 점차라고 한다든가, 혹은 종밀의 분류에 따른 최상승선 이전의 선을 습선習禪, 혹은 소승선이라고 하여 폄하하든가 차별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종의 선의 개념으로 조사선을 재단하는 것은 칼의 양날과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즉 한편을 잡으려(설명)하다가, 오히려 다른 한편에 의해 상처(논리의 치명적 손상)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선도 禪인 이상, 반드시 사마타(止)나, 위빠사나(觀)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조사의 언구인 공안을 잘 살피는 '조사서래의'는 위빠사나의 觀적 요소가 있으며, 喝이나, 榜의 공능은 止의 요소가 있다. 또 오가 종풍중 대표적인 간화선의 화두 의심은 사마타적(止)의 요소가 있고, 묵조선은 불성을 묵묵히 관한다는 입장에서는 위빠사나(觀)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하나의 개념틀로 설명하기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先學의 연구를 토대로 깊은 천착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상으로 근본불교에서 밀교에 이르는 수행의 내용을 지관의 개념으로 설명하여 보았다. 현대로 전승되고 있는 조사선도 止觀의 개념으로 조심스럽게 전근한다면 수행의 助道가 될 내용도 많이 있을 것이다. 보다 깊은 천착을 통해 수행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定慧社

갈대밭에 가면

본행本行 | 치문

순천 시내에서 별량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대대라는 마을이 나온다.

대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그곳은 넓게 자리 잡은 갈대밭이 유명하다. 혹 갈대가 많아 대대라 불리어 졌을까. 내외적으로 순천만 갈대밭이라 알려져 있는 이곳은 그 형성 역사와 지리적 가치와 용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전국 최대 규모라는 것과 많은 철새의 도래지로 생태학적 연구 가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들었다.

하여튼 이곳 갈대밭에 나의 작은 추억이 있어 잠깐 이야기 꾸러미를 열어본다.

"야, 너 갈대밭 가봤니"

"갈대밭. 그게 어디 있는데"

"순천만 갈대밭. 67번 타고 한 30분만 가면 있어"

"으응! 그래…"

"지금 가자! 가면 가슴이 확 트일 거야"

한참 생각 많고 고민 많던 고등학교 시절 평소 친한 누나의 소개로 처음 갈대밭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그때 나이 열일곱. 갈대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선 그저 '갈대가 많이 모여 있나보지' 생각하며 여느 때처럼 학업에 관련된 걱정만 하였다.

그런 나에게 누나는 "그곳엔 자유가 있어"라고 말했다.

"……"

난 속으로 피식 웃기만 하였다.

하지만 자유란 말에 내심 기대감이 쌓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외딴 시골 마을에 내리자 누나는 바로 옆 구멍가게를 찾아서 들어갔다.

"아줌마, 초코렛 있어요"

"누나 초코렛은 뭐하게"

"응, 갈대밭에 앉아서 먹으면 맛있어"

어림잡아 200미터는 넘어 보이는 작은 길을 걸어 작은 둔덕에 오르자 눈에 들어오는 넓은 갈대밭의 풍경에 잠시 말을 잊었다.

"야~, 와~"

탄성을 지르는 누나를 보고 좀 조용하라고 다그쳤지만 한편으론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갈대밭의 넓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묘한 부드러움과 안으로 감춰져 있는 힘이 느껴졌다.

"와~, 넓구나"

"좋지"

"응. 이런 데가 다 있었네…"

"이 갈대밭 둘레를 다 돌아보려면 두 시간은 걸릴껄."

"그래!"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나 보다 30분 정도 걸으니 전체의 1/4도 안 돼 보였다.

바람과 어울려 유연하게 움직이는 갈대들의 모습이 굳게 서있는 나무와는 또다른 포근함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종종 주말이 되면 혼자 갈대밭을 찾아가곤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에 이르자 평소 학업에 회의가 많던 나에게 갈대밭은 절대적 안식처가 되었다.

때론 소주병에 노가리포 하나 들고 갈대들과 인생 상담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치 어른을 흉내내는 장난 같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또 다른 배움이려니…

얼마 전 방학을 맞아 도반스님들과 함께 갈대밭을 찾아가 보았다.

예전에 그 고운 흙길은 콘크리트로 바뀌었고 갈대밭 군데군데는 땅으로 메워져 채소밭이나 논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이란 이름으로 더욱 변하겠지만 갈대들의 손짓은 여전하리.

그림 그리려고 오는 화가들, 데이트 하러 온 연인들, 시간이 없어서인지 자동차로 휭 둘러보는 관광객들, 철새를 연구하기 위해 나온 대학 교수님들, 밭을 매다가 새참 시간을 이용해 갈대를 바라보며 휴식하는 어머니들, 한쪽 구석에서 깡 소주 들이키며 푸념하는 아저씨들, 이들 모두 나와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리라.

이들을 아무런 말없이 받아주는 갈대밭. 그 넓은 갈대밭이 아직도 내 작은 가슴에 살아움직인다.

"거대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하나를 소중히 하십시오."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진 갈대 하나가 유난히 작아 보이지 않는다. 定慧社

바위와 노을

혜강慧江 | 사집

해가 넘어갈 무렵 송광사의 관음전 뒤편에 위치한 국사탑 위에서는 아주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노을을 제대로 보려면 저녁공양이 막 끝나는 때를 맞추어야 하기에 3~4명이 안행을 해야 하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몰래 혼자 각 전각을 바삐 돌아서 국사탑으로 향하곤 한다.

내가 노을을 좋아하게 된 때는 어린 시절 무등산 밑의 동네에서 살면서 부터이다. 무등산은 경치가 아주 좋아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이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가 산에서 가까워서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산을 자주 오르곤 했다. 40분쯤 걸려 오르면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지는 노을을 보며 뛰어놀곤 했다. 바위까지는 꽤 높고 먼 곳이어서 힘들 법도 했겠지만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비가 내린 다음날의 노을은 특히나 아름다웠다. 평소보다 선명한 저녁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했다. 그럴 때면 노을이 더 잘 보이는 높은 바위를 찾아 올라가곤 했다. 당시 내게 그 바위들은 노을을 함께 즐기는 친구였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강원의 원족산행으로 무등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우연히 잊고 지냈던 그 바위가 생각났다. 산행을 가기 전 그 바위에 가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산행코스가 규봉암 – 약사암 – 증심사 순이어서 규봉암 부근에 있던 바위에 가 볼 수 있었다. 정말 너무나 기뻤다.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어서 산길의 지리에는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원족산행 당일날 윗반스님 몇 분을 인솔하여 첫 코스인 규봉암으로 향했다. 그런 와중에 길을 잘못 들어선 탓에 30분 늦게 규봉암에 도착하게 된 자그마한 사고를 치른 후 부근에 있던 어릴 적 오르던 바위로 갈 수 있었다. 30분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한 탓에 여유시간이 얼마 없어서 서둘러야 했다. 걸음을 재촉하며 다시 찾은 바위는 예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우뚝 선 채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준 바위가 고마웠다.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바위에게 인사를 했다. "바위야! 잘 있었니…" 어릴 땐 커다랗고 높던 바위는 아주 작아져 있었다. 잠시 바위를 어루만지며 바라보다가 그 위에 올라 멀리 산들을 바라보았다. '하~' 하고 큰 숨을 내쉬자 이네 가슴이 시원해졌다. 그리고 주위를 내려다보았다. 어릴 적 보던 산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산들은 그대로였지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은 내 옆에 없었다. "나도 한번 올라가자"고 재촉하던 반가운 그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들 어디로 간걸까.

어린 시절 내게 노을을 좋아하게 해주었던 바위.

바위 위에 앉아서 이렇게 속삭여 보았다. "바위야.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 주어서 고맙구나! 나도 너처럼 변함없는 모습의 수행자로 살아보마. 내가 다시 찾는 그 날까지 변함없기를 바란다. 언제나처럼 오면 반겨주렴" 定慧社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시명是明 | 치문

삭발을 하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지만 그마저도 깎고 나면 그리 시원할 수 없다.

그간 쌓였던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나간 기분이라고나 할까.

내친김에 도망치듯 달려가다.

화엄전 지나 대밭 너머 수석정.

가는 길에 다람쥐가 앞서면 다른 놈이 뒤를 딱 그만치만 따라잡는다.

두 볼 가득, 무언가 머금고선 연방 오물조물 정신이 없다.

아마, 이 겨울 한 철 살아낼 제 놈들 양식이겠다.

가다말고는 나란히 돌아서서 지들 몸만한 꼬리를 추켜세우고 빤히 쳐다본다.

이에 질세라 여기서도 두 눈 부릅뜨니, 지나다 누가 보았으면 흡사 눈싸움이라도 한다 하겠다. 오늘따라 눈싸움이 길다. 오늘따라 눈싸움이 팽팽하다. 대숲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삭발을 막 마친 풋 중의 머리를 스치고 발밑에선 낙엽들이 사각거리며 걸음걸음 부서진다.

겨우내 눈이 내리고 내년 봄눈이 녹으면 부서졌던 저것들도 녹아있겠다.

법고를 치다.

따닥~ 따다닥~.

연습용으로 만든 고무판이지만 골짜기를 한 바퀴 휘돌아 울리면 그 소리가 제법 들을만 하다. 제 딴엔 열심히 한답시고 봄부터 두들겼는데, 아직도 소리나 모양새가 빽빽한 것이, 요즈음 말로 영 재주가 '꽝' 이다.

두둥~ 두둥둥~.

못다 푼 신명이라도 풀어 제치듯 억세게 두드려 보지만, 곱지 못한 소리에 이제야 겨우 쉬는 숲의 생명들에게 괜히 미안한 맘 앞선다.

골짜기를 만나다.

이 골짜기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맛이 참 달다.

그 한여름 시뻘건 태양이 머리꼭지를 달아오르게 하면 마치 애기마냥 홀랑 벗은 알몸으로 시작도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모여든 그 물 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그 맛이.

징검다리 위에서 턱하니 버티고 서서 모양 좋은 놈으로 골라 던져보는 돌팔매질, 겨우 예닐곱 번 퉁기다 사라지지만 그 손맛이 참 달다.

오늘, 저 산 너머 가던 연꽃 닮은 구름이 잠시 멈추고, 잎이 떨어져 나간 고목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들면 이 골짜기가 우리를 가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었음을 묵은 것을 삼켜서 새것을 토해내 주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는다. 여린 것들의 쉼 없는 찾아듦을 말없이 허락해준 그 고마움을 표시할 마땅한 곳을 찾다가 문득, 수석정으로 흐르는 물 위에 잠깐 기록하다. 定慧社

경전 한 구절

자비안慈悲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을 대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이어야 한다.
설사 남이 나를 꾸짖더라도 맞서 대응하지 말고,
자비로운 미소로서 대해야 한다.
설사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를 대함에 자비로워야 하고,
이웃을 만날 때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해야 되느니라.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남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화내지 말고,
혹 추켜세우더라도 들뜨지 않으며 근심 걱정 없으리라.
입을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공연한 말로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가 어려우니라"

불반니항경 권상;〈1-161하〉

詩가 있는 풍경

낙엽

법공法空 | 치문

개그맨이 되어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긴 쉬워도
스님이 되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지우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단풍이 짙은 가을 길을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하는데
늙고 초췌하여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의 마음은 어느 누가 헤아릴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사라지면
흔들리는 나뭇잎은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랜 세월 지난 일도 눈앞이 선하건만
방금 떨어진 낙엽은 허공에 발자취 하나 남기지 않네.

야음野吟

해동海東 | 사집

빈 곳을 의지하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아파
이제 쉬려 하네.

당장의 마음은 급하고 급해
나를 재촉하지만
이제 누군들 이런 이를 관심 두리.

홀로 서 있을 뿐
바라봄도 서글프네.

혼신의 힘은 어디 있나
그저 빛바랜 추억일 뿐…

『圓頓成佛論』과 『看話決疑文』을 통해서 본 禪敎一致

도해度海 | 사집

看話禪과 華嚴과의 관계에 대한 普照知訥스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圓頓成佛論』과 『看話決疑文』이다. 『圓頓成佛論』은 普照스님의 華嚴思想을 定礎한 것이고 스님의 사상이 禪敎一致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華嚴은 당시 불교계의 보편적 사상이었고 주류였다. (이 점이 중요함.) 普照스님이 생존했던 당시 고려시대는 선과 교가 서로 비방과 爭鬪를 일삼은 심각한 대립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普照스님의 진단은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와 그로 인한 파벌의식에 있음으로 파악한다. "敎가 禪의 그물(網)이라면 선의 교의 벼리(綱)이다"라는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때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 실다운 道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普照스님의 입장이었다.

『圓頓成佛論』과 『看話決疑文』의 저술 동기는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통현(李通玄)이 『華嚴論』을 가지고 당시 華嚴論者를 비판하고 자신의 선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저술이기도 하다. "禪敎의 입장에서 敎外別傳을 고집해야지 왜 화엄을 말하고 나아가 선교일치를 입에 담는가"

그런데 화엄의 절대적 우위에 선종이 처해있다면 禪敎一致를 주장하고 사회적 호응을 얻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普照스님이 禪敎一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

『圓頓成佛論』을 통하여 禪과 敎가 다른 것이 아니며 禪과 敎가 올바른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普照스님은 『看話決疑文』을 통하여 간화선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역설하고 話頭드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이른다.

『看話決疑文』의 마지막에서 普照스님은 華嚴과 看話禪과의 결정적인 차이로 드는 方法 중 參意와 參句로 구별할 수 있음을 들어 밝히고 있다. 즉 華嚴의 방법은 언어를 통하여 이해하는 참의에 해당되고 간화선은 疑心을 통하여 드는 참구임을 말한다. 그 참구만이 활구임을 말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成佛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천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근본을 깨닫고 漸修해가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理論의 연장선상에서 先悟後修가 생기게 된다. 즉 知訥스님의 頓悟漸修는 先悟後修로서 時間門前後關係에 따라서 먼저 깨달은 이후에 차차로 修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普照스님이 화엄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근본적 방식은 역시 會通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禪的修行을 하려는 자들에게 禪的修行을 위한 知的吐臺를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華嚴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두 관계의 회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普照스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看和禪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

李通玄(635 - 730 혹은 646 - 740)은 재야에 있으면서 華嚴經의 사상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요 저서의 「新華嚴經論」은 송대 이후 禪宗의 스님들만이 아니라 불교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에게도 널리 읽혀졌으며 최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普照스님의 선사상의 基底에도 李通玄의 華嚴思想인 根本普光明智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普照스님이 수용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自心에 대한 根本普光明智로써의 自性이 具足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自心의 根本普光明智를 증득하는 것은 지금 바로 刹那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多却成佛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刹那成佛을 설파하며 모든 것을 自心의 空寂靈知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보다 선법에 가까우면서 教門을 背反하지 않는 李通玄 華嚴의 根本普光明智에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關係構造를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李通玄 華嚴의 「根本普光明智思想」

그는 佛을 智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때 智는 스스로 그냥 존재한다. 佛과 智는 同意이다. 그렇기 때문에 信心者佛의 根本智가 衆生의 無明과 추호도 틀리지 않음을 알고 들어가면 十住初心의 正見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智를 중심으로 불교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은 李通玄 사상전체의 一別되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階位는 그 어느 것이라도 佛位가 된다. 李通玄에 의하면 十信이후의 실천은 모두 根本智, 不動智라고 하는 眞實智를 떠나지 않으며 보살의 상징인 善財가 행 한 바도 곧 모든 것이 智의 일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知訥스님의 자성의 空寂靈智 사상에는 李通玄의 根本普光明智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普照知訥스님의 「自性의 空寂靈智」

普照스님의 사유체계 전체를 일관하는 정신을 自性의 空寂靈智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이 평생을 통하여 설파한 것은 空寂靈智한 自性을 廻光返照함으로써 모든 問題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이 李通玄의 華嚴을 통하여 추구한 것도 根本普光明智로써의 自性이고 慧能과 神會를 공부하는 방법도 이 自性의 空寂靈智를 어떻게 證得하느냐는 것과 연관한 이해였다. 스님이 말년에 大慧를 통하여 體得한 것도 自性의 空寂靈智를 보다 빠르게 실천적으로 얻기 위한 方法論的인 自覺으로써의 看和經截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知訥스님의 모든 사유체계는 自性의 空寂靈智(즉 眞心의 實在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自性慧用으로써의 空寂의 心으로해석함)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맺는말

이 自性의 空寂靈智라는 一句는 輪廻苦海하는 衆生들에 대한 普照스님의 處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普照知訥스님의 禪思想에서 배워야 할 것은 自己自身의 整體性과 獨特性 그리고 普遍性의 양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를 보았을 때 세계 속에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불교와의 共通點과 普遍性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간화선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看話禪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看話禪과 華嚴을 비롯한 교학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看話禪 속에서 불교적인 普遍性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철저한 시대인식과 선택만이 남아있다. 定慧社

학인기고

「大乘에 歸依한 菩薩의 修行 차제에 관하여」

- 四敎『首楞嚴經』을 중심으로 -

○○스님 | 사교

이하 소개드리는 일체의 내용은 본 학인이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깨달음(悟)과 닦음(修)의 문제로서 실참실수實參實修해야 하는 수행자修行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조佛祖의 경론經論에서 밝히신 것만을 근거로 하여 성불成佛의 차제次梯를 보살십지菩薩十地를 중심으로 대비對比 회통會通한 수행修行과 수도修道의 위차를 원통불법의 요체와 금강심론에서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Ⅰ 차제次第를 알아야 하는 이유

'무릇 수행의 방법, 위차를 모르고 암중모색하는 암증선暗證禪이나, 또는 실수實修를 소홀히 하고 경론經論의 문자만을 섭렵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문자선文字禪이나, 혹은 미증未證을 증證으로 하고 미오未悟를 오悟로 하는 야호선野狐禪의 증상만增上慢 등을 물리치고 스스로 법사法師가 되어 구경을 성취…'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제를 모르면 선지식을 간별揀別 할 수 없으며, 자기 공부를 점검 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지고 아까운 세월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먼저 수행의 길목을 알고서 닦는 것이 선오후수先悟後修며, 그 길목을 모르고서 애쓰고 닦아가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선수후오先修後悟입니다. 선오후수가 정수正修이며 선수후오는 미수迷修입니다.' 돈수, 점수는 근기에 따른 차후의 문제입니다. 入道입도 이후에는 무념수無念修이기 때문에 사실 돈점의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Ⅱ 견성견도見性見道의 의미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초발심初發心, 능엄경의 신발심新發心, 견성見性, 견도見道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불성광명佛性光明, 청정적광淸淨寂光, 진공묘유眞空妙有, 근본자리의 광명光明을 직관直觀, 현관顯觀하는, 도道에 들어가는 입도入道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初發心時 便成正覺' 처음 발심했을 때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것은 '60화엄' 제8권 범행품에 있는 글로서 '처음 발심한다는 것(初發心)' 은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보살이 수행해가는 계위 - 여기서는 화엄의 41位 - 가운데 보살의 첫 계위인 초주위初住位에 해당합니다. '곧 정각正覺을 이룬다' 는 것은 초주위에서 보살이 처음으로 진여법성을 깨닫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근본자리의 성품을 견見한 것으로 초견성初見性을 말합니다. 초견성에서 본 진여성품이 정각의 진여 광명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도에 들어간 성인聖人의 자리입니다. 능엄경의 신발심新發心보살도 견도見道 이전의 사가행四加行을 통과하여 수도위修道位에 들어온 자로서 범부위凡夫位가 아닙니다. 화엄경을 설說하실 때 시회 대중은 41법신보살과 천룡팔부였습니다.

'우리는 견도見道와 수도修道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견도見道, 견성見性은 우리의 근본 성품, 부처의 성품, 근본자리, 즉 진리眞理를 보고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초견성初見性의 자리입니다. 수도修道는 견도한 뒤에 성불成佛까지 가는 과정에서 닦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엄밀히 개념을 구분해 보면 수도는 견성 한 뒤에 닦는 공부가 수도입니다. 견도, 입도할 때 까지는 수행修行이라 합니다. 견성에서 성불까지의 닦음의 문제는 점수, 돈오의 근기여부에 따라 단번에 구경각을 성취하는 돈초頓超, 몇 단계씩 뛰어 증오證悟하는 간초間超 또는 차제를 밟아가는 점수漸修가 있습니다'

'십혹十惑 중 탐貪,진嗔,치癡,만慢,의疑 오둔사(五鈍使,思惑,修惑)는 견도見道에서 성불成佛하기까지 수도위修道位에서 점차 끊어漸斷지며, 신견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 오리사(五利使,見惑,理惑)는 견도위見道位에서 돈단頓斷이라, 견성할 때 몰록 다 끊어버린다' 고 되어 있습니다.

Ⅲ 견성見性을 위한 실수實修

따라서 불성광명佛性光明을 보는 입도入道의 지점, 견도위見道位까지는 기도와 참선參禪, 관법灌法, 간화看話, 간경看經, 염불念佛, 송주誦呪 등 자신에 맞는 행법行法을 찾아서

애쓰며 닦아야 합니다. 육조단경六祖壇經 부촉품의 일상삼매一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로, 염염상속念念相續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신구의身口意의 침묵 집중 몰입으로 반드시 불성광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법修法에는 근본자리를 관觀하고 생각(念)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육안肉眼의 實性을 회복해야…」「수행자의 眼目을 得하는게 급선무…」 먼저 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또 인계생정因戒生定이라 계戒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삼매(定)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계戒는 심지계心地戒를 의미하며, 마음에서부터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행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정·삼매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해탈定解脫의 반야지혜般若智慧를 얻을 수 없으며, 해오解悟만의 혜해탈慧解脫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계·정·혜戒定慧 삼학도三學道는 삼세제불三世諸佛이 공수共修한 것이며, 입도入道로 통하는 佛法의 대도大道 입니다.

대승大乘과 소승小乘, 밀교密敎와 현교顯敎,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원시불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법佛法의 이론理論과 실천實踐을 가장 정밀精密하고 체계적體系的으로 종합 정리한 것이 천태학天台學이라 합니다. 천태에서도 수용한 근본불교의 부정관不淨觀, 수식관數息觀 등 오정심관五淨心觀, 삼십칠조도품三十七照道品 등도 참고하고, 가행위加行位를 거쳐 견성 입도의 단계까지 몸부림치며, 생사生死의 고비를 넘어서 대승보살大乘菩薩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교발달사佛敎發達史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불교를 선불교禪佛敎라고 얘기 합니다. 하지만 현상계에서 근본토대根本土臺, 일층이 없는 삼층 건물이 존재存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수행根本修行, 준비단계準備段階의 수행이 사라져버린 현재의 수행풍토修行風土를 직시直視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수행하여 몸소 증득證得하신 조사스님들의 방편 말씀만 붙들고, 불보살의 무량신통장無量神通藏, 무량공덕장無量功德藏을 몸으로 실천 증득하는 것은 거부하며, 깨달음만이 전부인양 여기는 무기력無氣力한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입니다.

성문, 연각까지의 소승과 대승 보살의 차이를 바로 알고, 소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넘어서는 것이 대승의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현상現象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분별分別이나 실상實相의 입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실상의 법法이 없는 본 학인學人은 삼가하고, 삼가지만 분별이 있음을 느끼며 간별揀別을 부탁드릴 뿐입니다.

○ 수능엄경 오십육위와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만성불四滿成佛

보살승의 계위階位에 있어 제경론의 소설所說이 종종부동種種不同하니『대일경』엔 십주의 십위 또 십지를 說하시고『승천왕반야경』엔 십지의 십위만을 說하시고『금광명경』엔 십지와 묘각의 십일위를 說하시고『인왕반야경』엔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묘각의 오십일위를 설하시고 일부의『화엄경』과『보살영락경』등엔 등각을 가하사 오십이위를 설하시고『수릉엄경』엔 난·정·인·세제일煖·頂·忍·世第一의 사선근을 加하사 오십육위를 설하심에 대하야『유식론』엔 십주·십행·십회향·십지·묘각의 사십일위를 설명하고『지도론』엔 此에 등각을 가하야 사십이위를 설명한바…

○ 사가행위(四加行位, 四善根)

난위煖位 색음色陰의 구우區宇를 타개打開하는 전상前相

정위頂位 욕계정천欲界頂天인 연려緣慮의 질다심상質多心相을 피운견월격披雲見月格으로 직견直見하는 법상法相이오.

인위忍位 此 位에서 욕계의 가상假相은 허공과 如함을 요달了達하야 此를 신인信忍함.

세제일위世第一位 욕계세간欲界世間의 정법頂法에 안주하고 동요가 無하야 세간에 제일법第一法일새이니.

구사종俱舍宗에선 사제관으로써 십육행상을 관찰하고 성실종成實宗에선 무상관無常觀으로써 오온을 관찰하야 상사相似의 열반지涅槃智가 生함을 사품에 分하야 下를 난법煖法, 中을 정법頂法, 上을 인법忍法, 上上을 세제일법世第一法이라 名하고 법상대승法相大乘은 初의 명득정明得定을 난법, 명증정明增定을 정법, 인순정印順定을 인법, 무간정無間定을 세제일법이라 칭稱하며…

○ 십신十 信

佛의 교법敎法에 入코자 하는 자는 먼저 십신으로써 하는 바 증전證前엔 미신迷信이오 증후證後엔 정신正信이라 신위信位에서 벌써 법성凡聖이 구별되니 주의 할지어다.

一. 신심信心 : 일체의 망상을 멸진滅盡하고 중도순진中道純眞함을 云

二. 념심念心 : 진신眞信이 명료明了하야 일 체에 원통圓通할새 기다幾多의 생사를 경經하드라도 현생現生의 一念을 유망遺忘하지 않음.

三. 정진심精進心 : 묘원순진妙圓純眞의 정명精明으로써 진정眞淨에 진취進趣함.

四. 혜심慧心 : 心의 정精이 現前할새 순진純眞의 지혜가 자연 발기發起함.

五. 정심定心 : 혜명智明을 집지執持할새 주변周遍이 담적湛寂하야 心을 일경一境에 상응常凝함이오.

六. 불퇴심不退心 : 정광定光이 발명發明할새 명성明性에 심입深入하야 오직 유진무퇴有進無退함이오.

七. 호법심護法心 : 心이 진進하야 안연安然할새 일체 佛

法을 보지保持하고 시방여래와 기분교섭氣分交涉함이오.

八. 회향심廻向心 : 각명覺明을 보지保持할새 능히 묘력으로써 불광佛光 회조廻照를 감感 하고 佛에 향向하야 안주安住함이오.

九. 계심戒心 : 심광心光이 밀회密廻할새 무위無爲에 安住하야 유실遺失 무無.

十. 원심願心 : 戒에 住하야 자재自在하새 시방에 유遊하되 실개悉皆 願에 수隨함.

○ 십주十 住

주住란 여법해如法解에 입각立脚함이니.

一. 발심주發心住 : 신심信心의 用을 섭입涉入한 원성일심圓成一心의 位요.

二. 치지주治地住 : 心이 명정明淨함이 유리 내에 정금精金을 現함과 如히 전의 묘심으로써 이치 履治하는 경지境地를 운云함.

三. 수행주修行住 : 전의 지地를 섭지涉知하야 명료明了할새 시방에 유리遊履하되 유애留 碍가 없음이오.

四. 생귀주生貴住 : 佛의 기분을 수受하야 피차彼此에 명통冥通할새 비로소 여래종如來種에 입入함이오.

五. 방편구족주方便具足住 : 自利와 利他의 방편을 구족할새 여래행동如來行動함이오.

六. 정심주正心住 : 행동行動에 한限할배 않이라 심상心相도 佛과 동일함.

七. 불퇴주不退住 : 신심身心이 합일하야 일일日日 증장增長함이오.

八. 동진주童眞住 : 불구佛具의 십신十身을 일시一時 구족具足함이오.

九. 법왕자주法王子住 : 생귀주까지를 입성태入聖胎라 云하고 동진주까지를 장양성태長養聖胎라 위謂하고 此 住에선 상형相形이 구족하야 비로소 출태出胎할새요.

十. 관정주灌頂住 : 보살이 이미 佛子가 되야 能히 불사佛事를 行함에 佛이 지수智水로써 관정함이니 찰제리刹帝利 王子의 수직관정受職灌頂과 여如함.

○ 십행十 行

一. 환희행歡喜行 : 佛子가 된 보살이 여래의 묘덕으로써 시방에 수순隨順할새요.

二. 요익행饒益行 : 일체중생을 이익케 할새요.

三. 무진한행無嗔恨行 : 자각과 각타에 위역違逆이 無함으로써니 또는 무애한無碍恨이라 무위역無違逆이라고도 운云함이오.

四. 무진행無盡行 : 중생의 기류機類에 수隨하야 기其 신身을 현現하되 삼세가 평등하야 十方에 통달할새 이타의 行이 무진無盡함.

五. 이치란행離痴亂行 : 종종의 법문이 부동不同하드라도 일체가 합동合同하야 차오差誤가 무無함이오.

六. 선현행善現行 : 이미 치란痴亂을 이離할새 능히 동류중에 이상異相을 現하고 一一의 이상異相에 동일상을 現하야 동이同異가 원융圓融함이오.

七. 무착행無着行 : 시방허공에 미진微塵을 만족하고 일일진중一一塵中에 시방계를 現하되 진계塵界에 유애留碍가 무無함이오.

八. 존중행尊重行 : 난득행難得行이라고도 云하니 前의 종종種種 현행現行은 오직 반야般若가 관조觀照하는 力일새 六度 中 특特히 반야바라밀을 존중함.

九. 선법행善法行 : 원융의 덕德으로써 능히 십방제불의 궤칙을 현성現成함.

十. 진실행眞實行 : 전의 원융덕상은 일일히 개시皆是 청정무루로서 일진무위一眞無爲의 실성實性일새 본래부터 여상如常할새니라.

○ 보살십지菩薩十地 십바라밀과 십지심

一. 환희지歡喜地 : 보살이 이미 탐심 삼분이三分二를 제除하고 견혹을 파破할새 비로소 성성聖性을 득得하야 아법我·法 이공二空의 리理를 증證하고 대환희를 생生함, 동시에 일체를 구호救護하야써 무주상의 보시를 행하고 此에 기基하야 열반안에 도到할새 布施,단바라밀檀波羅密을 성취함이오 초지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종자種子요.

二. 이구지離垢地 : 잔여 일분一分의 탐심을 제除함에 따라 일직히 견혹에 기基하였든 사혹을 제하는 동시에 계바라밀戒波羅密을 성취할새 훼범毁犯의 구垢를 이離한 身으로 하야금 사념思念이 청정함, 二地의 십선심十善心은 아芽요.

三. 발광지發光地 : 진심嗔心 난·정·인·세제일을 억제하고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을 성취하야써 제찰법인諦察法忍을 得하니 지혜智慧-현발顯發함, 三地의 명광심明光心은 포苞요.

四. 염혜지燄慧地 :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을 성취하니 혜성慧性으로 하야금 치성케 함 四地의 염혜심焰慧心은 엽葉이오.

五. 극난승지極難勝地 : 진심嗔心의 근본이 제거되는 동시에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을 성취하고 리사理事를 계합하야써 진속이지眞俗二智의 상응相應을 성공함에 따라 진사혹塵沙惑을 除하게 됨 五地 대승심大勝心은 화花요.

六. 현전지現前地 : 하등의 탐진貪嗔 二心이 이진已盡함에 따라 혜바라밀慧波羅密을 성취하니 최승지最勝智를 發하야 염정染淨이 無한 일진법계一眞法界의 행상行相이 현전함 六地의 현전심現前心은 과果요.

七. 원행지遠行地 : 탐진이진貪嗔已盡에 따라 일분一分의 치심이 제거되니 대비심을 發하야 방편바라밀方便波羅密

을 성취하고 이승二乘의 자도自度를 원리遠離함 칠지七地의 무생심無生心은 수용종자受用種子요.

八. 부동지不動地 : 이미 이승二乘을 원리遠離하고 보살의 대원大願을 發한지라 此 地에서 원바라밀願波羅密을 성취하고 무상관無相觀을 작作하야 임운무공용任運無功用을 상속할 뿐임. 八地의 부사의심不思議心은 위무외의爲無畏依라 과중지과果中之果요.

九. 선혜지善彗地 : 력바라밀力波羅密을 성취하고 십력을 구족하야써 일체처에서 가도可度와 불가도不可度를 지知하야 능히 설법 함, 九地의 혜광심慧光心은 유진구불혜생有進求佛慧生라 최승심最勝心이오.

十. 법운지法雲地 : 장도무영障道無明의 근본을 단진斷盡하고 수용법락지受用法樂智와 성숙유정지成熟有情智로써 지바라밀智波羅密을 성취할새 무변의 공덕을 구족하야 무변의 공덕수를 출생함이 대운大雲이 청정의 중수重水를 生함과 如함, 후의 사바라밀이란 제육第六을 개開하야 십지에 배대配對한 자者니라. 십지의 수위심受位心은 곧 결정심決定心인 바此의 二心은 第八心中에서 개출開出하였으나 일일지중一一地中에 此의 십심이 역재亦在하니 此 십지심은 『영락본업경』 上과 『대일경소』 三에 상설詳說하였나니라.

○ 십회향十廻向과 등묘等妙

一. 구호일체중생회향救護一切衆生廻向
二. 불괴회향不壞廻向
三. 등일체불회향等一切佛廻向
四. 지일체처회향至一切處廻向
五. 무진공덕회향無盡功德廻向
六. 입일체평등회향入一切平等廻向
七. 수순중생회향隨順衆生廻向
八. 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
九. 무박무착회향無縛無着廻向
十. 법계무량회향法界無量廻向

십신·십주·십행이 因이 되고 십지가 果가 될 시엔 此의 因이 果에 대한 십회향이오 십지까지 인위因位가 될 시엔 묘각에 대한 십회향일새 십주 혹 십지의 십위만에 약約하심은 기其 의意에 있어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 五種의 십위요 십위를 오십육에 개開하심은 십중十重의 오위에 전후를 加하심인 바 기후其後에 이설異說의 번煩을 요要함은 선수후증先修後證에 입각立脚함이니라.

그리고 등각위等覺位를 가감하심은 등각의 경계를 別示별시하실 時엔 加하시고 제위諸位의 수분각隨分覺이 될 時엔 감하시고 인위因位에 대하사 별시를 필요로 하실 時엔 加하신 바 수자修者는 맛당히 수증修證의 원의圓義를 음미하는 동시에 十의 위묘位妙를 체찰諦察할지니라.

Ⅳ 맺는말(結語)

수행의 길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윤곽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함으로 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던 신심信心마저 약해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소승, 견도견성, 여래선, 조사선, 돈점 등 문자에 집착 마시고 모쪼록 소개드린 수도修道의 위차位次가 시절인연이 되어서 가시는 길목, 8만4천 방대한 불법의 바다에서 핵심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서원誓願합니다.

불법의 전모를 통달通達하지 못하고 어느 일방만을 확대 집착, 국집 하는 법집法執에서 떠나 실상實相의 대아적大我的인 관점으로 종교와 종파, 국경과 민족, 인종, 사상, 문화 등의 모든 벽을 허물어가는 불교佛敎, 사무치게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소원, 조국평화통일의 사상적 기치가 되기를, 인류의 모범을 창출하는 우리민족, 우리불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찰라찰라, 순간순간 뼈아픈 실천實踐으로 체득하고 증득하여 진리眞理를 증명하는 수행자修行者가 되기를, 세세생생世世生生 보살도를 행行하는 불모佛母가 되기를 發願발원하며 금강심론의 금구성언金口聖言으로 마무리합니다.

"일미一微를 오견誤見하면 망상妄想이 되고, 정견正見하면 진각眞覺이 된다. 일체 만사萬事가 자기의 견해에 의하여 진망眞妄이 간별揀別될 뿐 일미一微나 일체一切에 본래 진망眞妄이 없으며 기세간器世間 : 現象界 이대로가 일진법계一眞法界로서 일체중생이 일불一佛의 화신化身이며, 개별적 화신化身이 바로 본신本身의 불佛임을 망각하고, 전도망상顚倒妄想하여 미혹인迷惑人이 되고 스스로 범부凡夫라 이름하나 일대인一大人에게는 성범聖凡이 없다.

'만약 사람이 삼세三世의 일체가 불佛임을 요지了知하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성法界性을 관觀할지니, 일체가 유심唯心의 소조所造니라 〈약인욕료지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함은 화엄게華嚴偈이다.

법계성法界性을 견見하고 그 이하는 색법色法으로써 전간全揀하며, 이상은 심법心法으로 전수全收하니,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공空이란 색애色碍가 없는 부단공不但空인 진공眞空을 말하며, 색色이란 질애質碍이면서 그림자와 같이 진공체眞空體의 묘용妙用인 가상假相을 말하므로, 즉체卽體 즉용卽用으로서 성·상性·相이 일여一如이며, 즉심즉불卽心卽佛이므로, 삼세 일체가 보현경普賢境이다" 定慧社

修道의 位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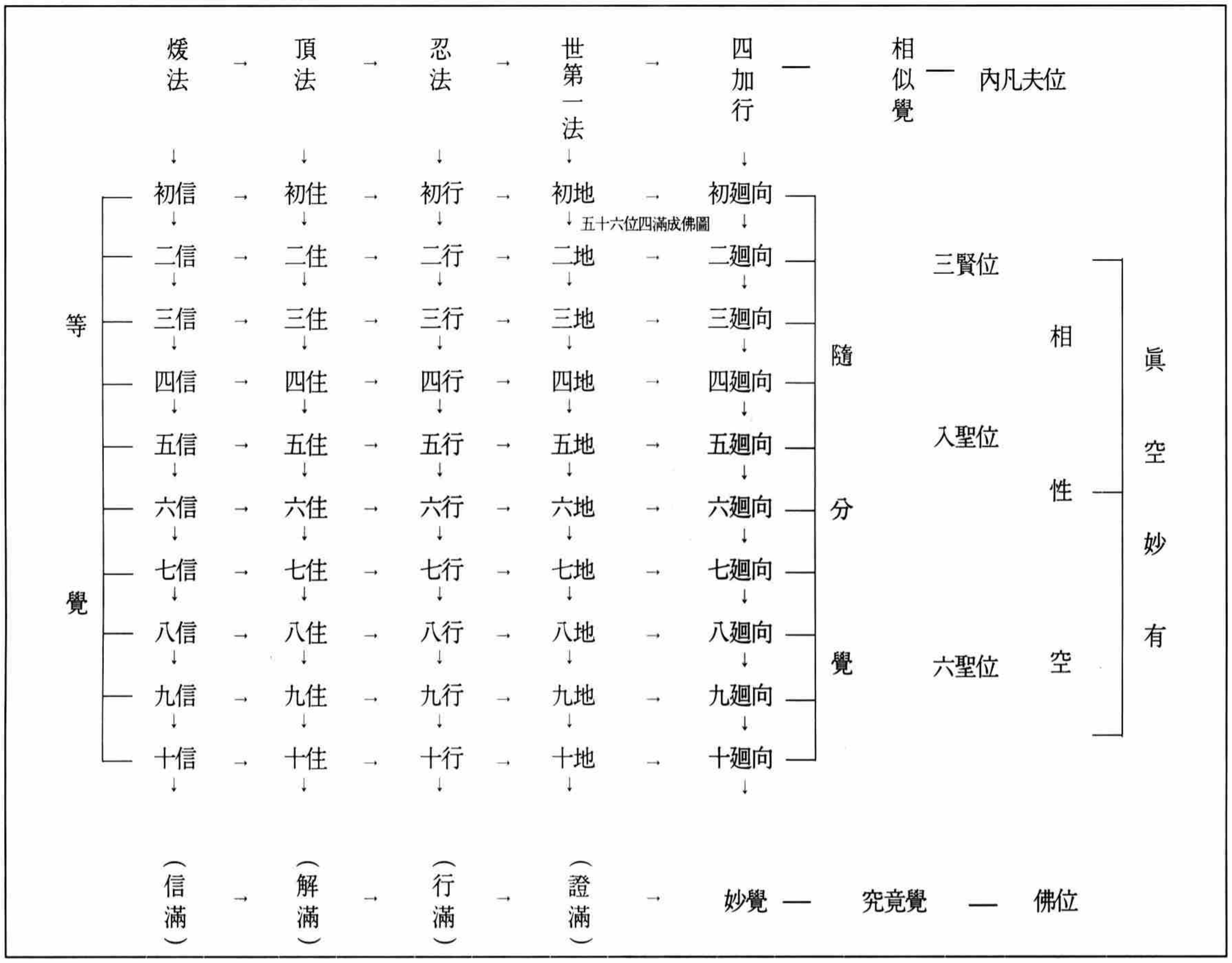
<table>
<tr><td>菩薩乘十地
(華嚴經)</td><td>十波羅密
(唯識論9)</td><td>五十六位四滿成
佛位
(首愣嚴經)</td><td>解脫十六地
(金剛心論)</td><td>五(十四)忍
(十三觀門)
(仁王經敬化品)</td><td>九次第定
(智度論)</td><td>瑜伽十七地
(瑜伽論)</td></tr>
<tr><td>a</td><td>b</td><td>c</td><td>d</td><td>e</td><td>f</td><td>g</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2"></td><td>初. 三歸地</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3">一. 五識身相應地</td></tr>
<tr><td>二. 信願地</td></tr>
<tr><td>三. 習忍地</td><td>下伏忍
(習忍)</td><td>黃昏天地夢想
(牛毛塵)
七色現前
(羊毛塵)</td></tr>
<tr><td></td><td></td><td>（四加行凡夫位）
煖位
頂位
忍位
世第一位</td><td>四. 加行地</td><td>中伏忍
(性忍)</td><td>(明得定)
識光發現(兎毛塵)
(明增定)
心月現前(水塵)</td><td rowspan="2">二. 意　　地</td></tr>
<tr><td></td><td></td><td></td><td>上伏忍
(道種忍)</td><td>(印順定)
心月廣狹自在(水塵)
(無間定)
心日現前(金塵)</td></tr>
<tr><td>初. 歡喜地</td><td>檀波羅密</td><td>初（信住行廻向地）</td><td rowspan="6">（三賢位）</td><td>五. 金剛地
六. 喜樂地</td><td>下信忍</td><td>① 初禪
② 二禪
③ 三禪
④ 四禪</td><td>三. 有尋有伺地(初選)
四. 無尋有伺地
五. 無尋有伺地(二禪)</td></tr>
<tr><td>二. 離垢地</td><td>戒　〃</td><td>二. (〃)</td><td>七. 離垢地</td><td>中信忍</td><td>⑤ 空無邊處定
⑥ 識無邊處定
⑦ 無所有處定
⑧ 非想非非想處定</td><td>六. 三摩呬多地(等引)
七. 非三摩呬多地
八. 有心地</td></tr>
<tr><td>三. 發光地</td><td>忍辱　〃</td><td>三. (〃)</td><td>八. 發光地</td><td>上信忍</td><td rowspan="2">⑨ 滅盡定
(受陰滅盡)</td><td rowspan="4">九. 無心地
十. 聞所成地
十一. 思所成地
十二. 修所成地</td></tr>
<tr><td>四.燄慧地</td><td>精進　〃</td><td>四. (〃)(入聖位)</td><td>九. 精進地</td><td>下順忍</td></tr>
<tr><td>五. 難勝地</td><td>禪　〃</td><td>五. (〃)</td><td rowspan="5">（六聖位）</td><td>十. 禪定地</td><td>中順忍</td><td rowspan="2">(想　〃)</td></tr>
<tr><td>六. 現前地</td><td>慧　〃</td><td>六. (〃)</td><td>十一. 現前地</td><td>相順忍</td></tr>
<tr><td>七. 遠行地</td><td>方便　〃</td><td>七. (〃)</td><td>十二. 羅漢地</td><td>下無生忍</td><td rowspan="2">(行　〃)</td><td>十三. 聲聞地</td></tr>
<tr><td>八. 不動地</td><td>願　〃</td><td>八. (〃)</td><td>十三. 支佛地</td><td>中無生忍</td><td>十四. 獨覺地</td></tr>
<tr><td>九. 善彗地</td><td>力　〃</td><td>九. (〃)</td><td>十四. 菩薩地</td><td>上無生忍</td><td rowspan="2">(識　〃)</td><td>十五. 菩薩地</td></tr>
<tr><td>十. 法雲地</td><td>智　〃</td><td colspan="2">十. (〃)等覺</td><td>十五. 有餘地</td><td>下寂滅忍</td><td>十六. 有餘依地</td></tr>
<tr><td></td><td></td><td colspan="2">妙覺</td><td>十六. 無餘地</td><td>上寂滅忍</td><td></td><td>十七. 無餘依地</td></tr>
<tr><td colspan="7">참고 : ① a,d,e를 配對의 根幹으로 하였으며 配對가 可能한 것은 線으로 區分지었음.
② 各 經論의 配對基準이 相異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配對란 어려움.
③ 漸修, 頓悟의 根機여부에 따라 次第를 밟아가는 次第 漸修 또는 몇 단계씩 뛰어 證悟하는 間超 그리고 단번에 究竟覺을 成就하는 頓超가 있음.
- 두 줄의 실선을 중심으로 상하 범부위와 성자위로 구분 함.</td></tr>
</table>

修道의 位次(2)

三乘共十地 (智度論18)	聲聞乘十地 (大乘同性經)	緣覺乘十地 (大乘同性經)	五相成身位 (菩提心論)	唯識五位 (唯識論)	六卽 (止觀一의三)	四道 (俱舍論 二十五)	十住心 (秘藏寶論)	十牛圖 (廓庵志遠)
h	i	j		l	m	n	o	p
	初. 受三歸地 二. 信地 三. 信法地			一. 資糧位 (十住 十行 十廻向)	一. 理卽 二. 名卽		一. 異生 羝羊心	一. 尋牛
一. 乾慧地 (五停心 別相念處 總相念處의三賢位)	四. 內凡夫地 (五停心觀등) 五. 學信戒地	一. 苦行具足地 二. 自覺甚深 十二因緣地 三. 覺了四聖諦地			三. 觀行卽 (①隨喜品 ②讀誦品 ③說法品 ④兼行六度品 ⑤五行六度品)	一. 加 行 道	二. 愚童 持齊心 三. 嬰童 無畏心	二. 見跡 三. 見牛
二. 性地		四. 甚深利智地 (無相地의生)	(通達心 前相) 通達菩提心位	二. 加行位			四. 唯蘊 無我心	四. 得牛
三. 八忍地	六. 八忍地 (聲聞見道位)	五. 八聖道地 六. 覺了法界 處空界衆 生界地	修菩提心位 成金剛心位		四. 相似卽	二. 無 間 道	五. 拔業 因種心	五. 牧牛
四. 見地	七. 須陀洹地 (預流果)	七. 證寂滅地 (六通地初)	成金剛身位	三. 通達位 四. 修習位 (十地)	五. 分眞卽 (十住位·十行位·十廻向位·十地位·等覺位)	三. 解 脫 道 四. 勝 進 道	六. 他緣 大乘心 七. 覺心 不生心	六. 騎牛歸家 七. 忘牛存人
五. 三薄地	八. 斯陀含地 (一來果)	八. 六通地					八. 一道 無畏心	八. 人牛俱忘
六. 離欲地	九. 阿那含地 (不還果)						九. 極無 自性心	九. 返本還源
七. 已辦地 (阿羅漢果)	十. 阿羅漢地	九. 徹和蜜地 (無學果證)					十. 秘密 莊嚴心	十. 入廛垂手
八. 支佛地		十. 習氣漸薄地						
九. 菩薩地								
十. 佛地			佛身圓滿位	五. 究竟位	六. 究竟卽			

④ 同一한 語로서 配對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는 論者에 따라 主張과 意義를 달리 하기 때문임
⑤ c에 있어서 等覺이 菩薩의 極位를 意味하여 이를 別示할 時는 五十六位가 되고 等覺이 諸位의 隨分覺이 될 時는 이를 減하여 五十五位가 됨.
⑥ m의 理卽이란 一切衆生의 自性淸淨心으로서 本來 妄念을 離한 覺體를 意味하므로 修行의 次位가 아님.

오십육위사만성불도



※ 여실신如實信의 신만信滿으로써 법法에 주住하야 如實解의 해만解滿으러써 실행實行하고 여실수행如實修行의 행만行滿으로써 실증實證하되 신증심오身證心悟의 증만證滿으로 성불成佛할진져
참고서적 -『원통불법의요체(청화선사법어집)』『금강심론(성륜각,釋金陀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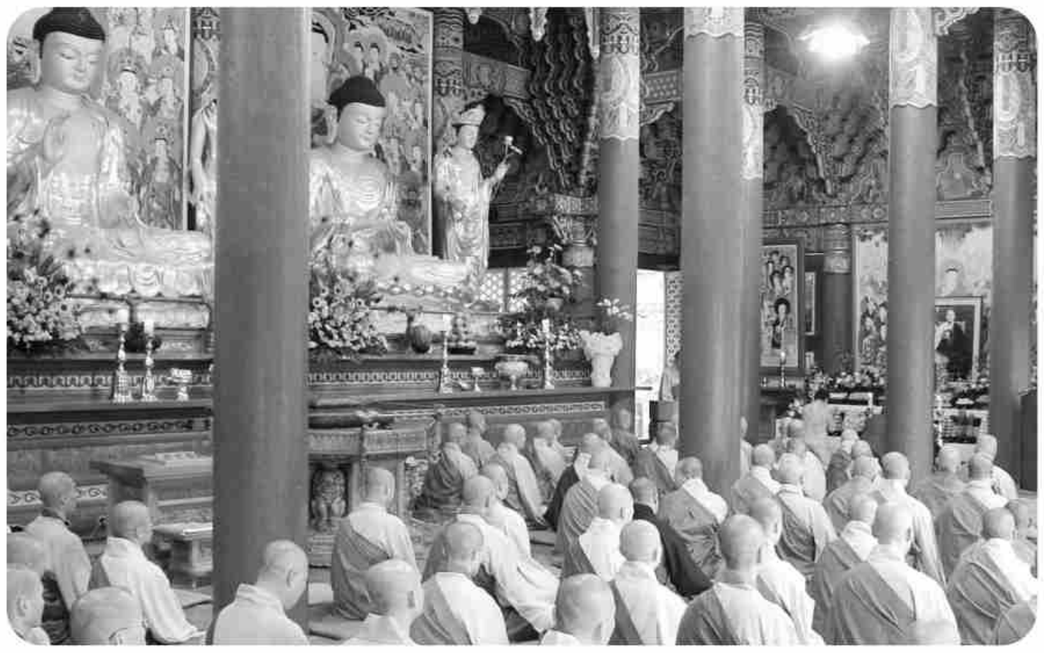
心	法身 報身 化身	淸淨法身毘盧遮那佛 空 陀 圓滿保身盧舍那佛 性 彌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相 阿	佛	眞如 如來 法性 實相 菩提 道 大我 眞我 大我 眞我 涅槃 極樂 一物 中道 覺 無我 主人公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10월 1일~3일 불교문화축제

16국사 이운식과 인경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예년에 비해 풍성했던 불교문화축제, 관객들로 하여금 열광의 도가니를 만끽하게 하였던 산사음악회, 기존의 고리타분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람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4일 효봉선사재

장좌불와로 대중 스님들에게 진정한 용맹정진의 모습과 재가자들에게는 참다운 가르침을 보여준 효봉스님을 기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해 보는 효봉선사재 였습니다.

10월 10일 정수원 상량식

낡은 정수원을 헐고 새로운 정수원을 짓기 위한 상량식! 좀 더 넓고 안락한 정수원으로의 탈바꿈을 기대합니다.

10월 15일 가을산철 원족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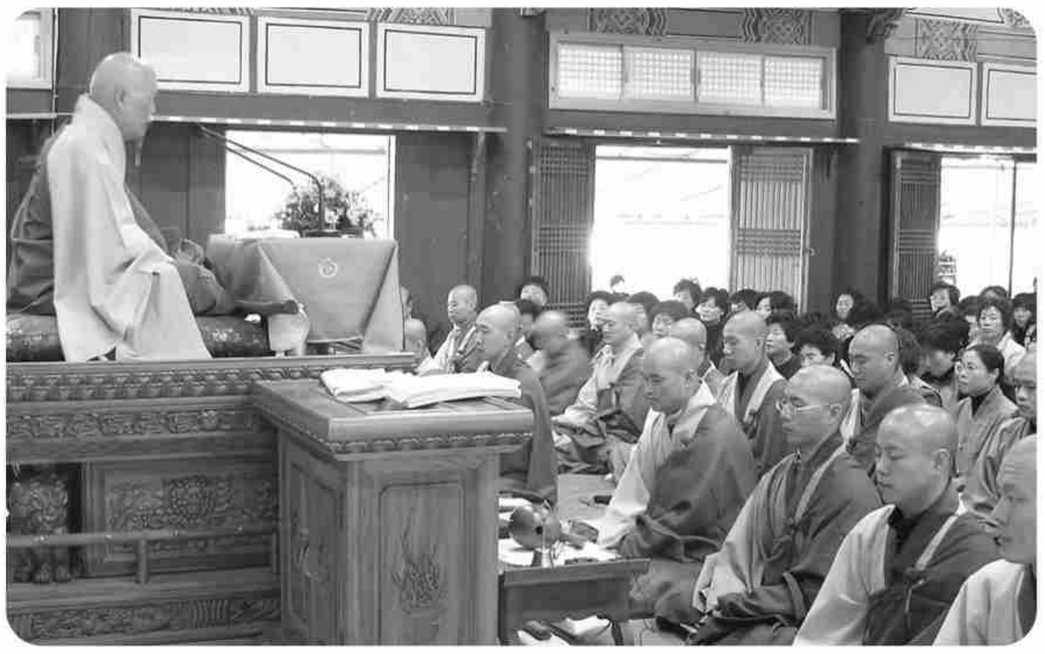
전남 영암에 위치한 월출산을 다녀왔습니다. 기암괴석으로 장엄된 수려한 경관은 스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선 모두가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1월 24일 고추밭 운력

고추가 익어간 만큼 스님들의 마음공부도 무르익었겠지요. 고추밭을 정리하며 한해의 살림살이를 되새겨 봅니다.

12월2일~1월19일 금강산림대법회

큰스님 8분의 법문 대장정이 사자루에서 있었습니다. 모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 디딜 틈 없이 빼꼭히 자리 잡은 신도님들의 모습은 그 동안 지혜의 법음에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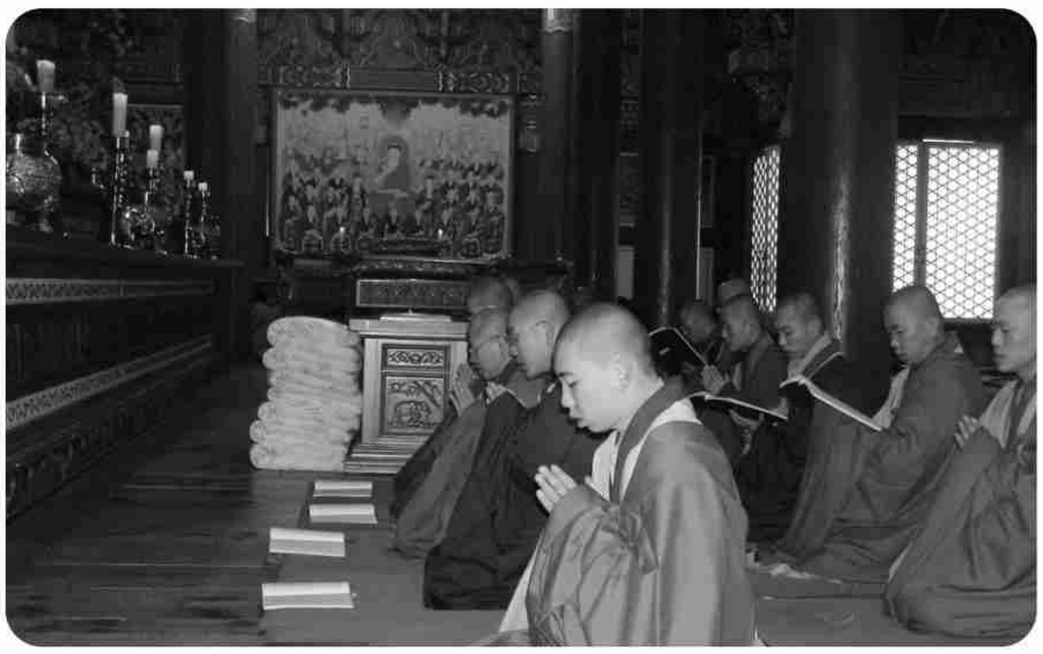


12월 5일~6일 김장운력

무척이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 한번 보이지 않고 한포기 한포기 정성을 다하는 대중 스님들의 모습 속에서 일상사가 공부라는 조사스님들의 말씀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12월 21일 동지 새알울력

추운 겨울날씨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대중스님들과 보살님들이 정성어린 하얀 손으로 새알을 빚으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동지를 기다리며 새해를 준비해 봅니다.



12월31일~1월6일 성도절 자비수참기도

진정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지금껏 부처님 법 모르는 무명으로 지은 악업을 일주일간의 참회기도를 통해 모두 소멸하기를 발원합니다.

1월11일 동안거 반결제 원족산행

오대명산 중 하나인 전남 장흥의 천관산으로 동안거 원족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빙판길이 많아 미끄러지길 수십 번하고 다다른 정상에 오르자 안개에 가린 산 아래 바다는 마치 구름파도를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2월 3일~5일 동안거 특강

무애 강사스님을 모시고 '불교의 지관수행'이란 주제로 동안거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특강은 훗날 수행자로 살아가야 하는 학인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 박채균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능혜스님 061)755-5302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 출판물로써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함께하며 여러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호평과 격려,
그리고 질타와 충고 속에서 출판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는 앞으로의 발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 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광주 원각사 · 서울 여래사 · 여주 백화사 · 담양 금강원 · 서울 길상사 · 통영 미래사 · 수원 포교당 · 광주 약사사 · 부산 관음사 · 화순 운주사 · 광주 증심사 · 송광사 선원 유나스님 · 총무원부장 현고스님 · 송광사 일귀 강사스님 · 나주 천강사 동일스님 · 장수 성관사 해진스님 · 대교반 해청스님 · 대교반 보순스님 · 구산스님 문도회 · 송원회 · 여수 MBC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조계종총무원 · 김제 금산사 · 부산 안국사 · 서울 길상사 · 송광사 수원 포교당 · 금강원 · 정인사 · 안국선원 · 여수MBC · 순천 나우마트 · 벌교 포교당 보리스님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서울 길상사 주지스님 · 곽미숙님 · 김갑숙님 · 정성태님 · 김현정님 · 강병균님 · 양숙현님 · 박동운님 · 정영희님 · 한동화님 · 연지향님 · 환희성님 · 이경주님 · 문명숙님 · 정경인님 · 강석찬님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47일간의 편집기간은 긴 시간인 듯 하지만 좌충우돌로 하루하루 실험하며 작업해나간 32호 편집부 스님들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이 시행착오가 능란함으로 바뀌어 한결 수월한 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부원 스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 「정혜사」誌에 실린 스님들의 글 한편 한편에 감동하며 지금껏 후원해주신 신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감사의 마음을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글을 통하여 표시합니다.

을유년 동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大衆
行步無妨前後掉　求他不如反求諸己
面前若有一葉　到處無風起浪
忽聞寒雁一聲　咸沒黑山鬼窟

대중들이여!
걸어갈 때에 앞뒤로 팔을 흔드는 것은 무방하지만,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만 못한 것이니라.
만약 눈앞에 잎새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간 곳마다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킬 것이요.
홀연히 찬 기러기 울음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모두가 캄캄한 귀신 굴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 방장스님 법어 中 –

무자無字로 개오開悟되야 생사거래 무無랍더니
어째서 여기에는 무無 아니고 유적有跡인고
아마도 스님 영현影現은 월인천강月印千江 이런가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효봉영각曉峰影閣의 무무문無無門